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4 2006. 12

통일교육소식

www.uniedu.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1기 ‘UEM’ 객원 및 명예기자 2차선발 공고

제1기 1차 선발 기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슴으로 함께 고민할 통일교육소식지^{UEM}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눈과 귀가 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객원기자〉 인터뷰 및 스크립터,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명예기자〉 일상 속 평화와 통일관련 소재 발굴 및 취재

응시자격
초·중·고등 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와 대학생 및 일반인
(성별, 학력, 나이 상관없이 해당부문 관심 있는 자 추천도 가능)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공통: 일반서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객원기자: 통일 또는 평화(국내 또는 국제) 관련 칼럼 1건(200자 원고지 7장 내외)
*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응시자는 통일 또는 평화 이미지 사진파일 2점 제출
명예기자: 평화와 통일 관련 소재 또는 관심영역 기사(200자 원고지 5장 내외)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 개별통보 후 추후 면접 전형일 홈페이지(www.uniedu.co.kr) 공지 및 개별통보

〈모집마감〉
2007년 3월 7일

〈접수 및 문의〉
assa@khan.co.kr로 '제1기 2차선발 UEM 기자 응시' 제목으로 접수 및 문의
* 응모 의사가 있는 분들 중 UEM 기 발행호가 필요하신 분은 위 메일로
받을 주소와 성명, 연락처를 보내 주세요

지원 및 혜택
· 기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 지원 및 기념품 제공
· 해당부문 활동경력 인정서 발급

1차선발 ‘UEM’ 객원 및 명예기자 프로필		
〈객원기자〉	최우진(25)	〈아트 포터〉
조희제(57)	동국대 사회학과 졸	양호근(22)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	경실련 통일협회 활동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4년(재)
서서울생활과학고 교사		
교육부 인터넷평화학교 운영위원	〈명예기자〉	오세호(20)
	송화영(24)	세종대 패션디자인과 3년(재)
이점호(32)	통일교육문화원 교육담당 간사	
고려대 국제대학원(석사)		
민화협 정책과장	이국희(22)	
통일신문 편집국 부장(전)	선문대 국제경제학과 3년(재)	
최관(25)	김지예(21)	
동국대 경찰행정학(석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3년(재)	
경찰뉴스신문 편집국 주간	이현순(18)	
국민일보 프리랜서 기자	서서울생활과학고 3년(재)	
	교내 통일연구반 차장	
* 제1차 객원·명예기자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표지 그림 : 농악
작가 문창수 mooncs2008@hanmail.net
대한민국 미술대전(93·94·96·98년) 입선, 개인전 3회 및 아세아미술초대전 등 단체전 다수 참여, 현재 광명미술협회 자문위원·한국미술협회·연미회 회원으로 활동 중



2006년 12월 5일 발행(통권 제4호) 등록번호 11-1250054-000033-09
발행인 김홍재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02)901-7160~7 Fax 02)901-7088
주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Tel 02)901-7165
편집위원 윤환철·이미경·최경자·허윤
편집기획·제작 (주)경향C&L www.kup365.com Tel 02)733-0365
편집디자인 Design B61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통일교육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교육소식 Contents

- 02 공고 제1기 'UEM' 객원 및 명예기자 2차선발
04 특별기고 통일교육, 공존적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_ 심우엽
06 커버스토리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
09 테마기획 - 청소년 눈에 비친 '통일'
· 학생들의 시와 수필로 본 '2006년 통일기상'
· 통일여행 참가 초등학생이 말하는 '신나는 통일여행'

- 17 통일교육 현장 안팎
· 통일교육은 특별한 게 아니다 _ 최경자
· 자긍심, 자아 존중감 함양이 우선 _ 한상훈
·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비주얼 학습 Tool' _ 최남현
· 우리네 생활 속 '문화운동' 으로 전개 _ 김경민
· 교육현장에서 연구하는 '미래 통일한반도' _ 이영호

- 31 새터민들의 24시 '탈북자' 가 아닌 '유지선' 으로 봐주세요 _ 허윤
34 NGO's 소개
· 겨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_ 정도상
· 굿네이버스 _ 김왕희

- 40 북한 깊이보기 북한 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과 남북협력 전망 _ 이정
42 통일을 여는 역사
· '2006 남북문화재도서전' 이 남긴 성과와 과제 _ 이치현
· '인류의 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 의 의미 _ 전호태
· '2006 세계평화축전' 결산 _ 편집부

- 48 꿈트 아버지의 고백 _ 오인문
52 남북경제협력
· 주요통계로 본 2006년 하반기 남북관계
· 올 10월 농협 금강산지점 개설 외

- 54 남북사회문화교류
· 수해복구 지원 '북핵' 이후 잠정보류 _ 조원호
· 지난 8월 낙랑섬김인민병원 착공식 _ 신현영
· 한살배기 '북녘에 나무 보내기 운동본부' 의 꿈 _ 안도현
· 가수 박진도의 통일사랑 이야기 _ 허윤

- 60 통일여행기 동구 舊사회주의권 국가 연수를 마치고 _ 강이식
62 통일교육원 올 하반기 행사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 결산 등 _ 편집부
64 통일·남북 관련 신간 클로즈업
65 독자 엽서
67 통일·남북 관련 신간안내



심우엽 춘천교대 총장

통일교육, 공존적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통일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통일의 필요성을 성인세대만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북한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그들에게 통일된 국가에서 남북이 하나로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통일교육은 그들이 통일된 조국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이론적·추상적 내용 중심에서 구체적이고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의 방식과 내용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간단히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통일교육의 방식에서 볼 때, 통일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통일교육원에서 구성하고 가르칠 대상을 직접 통일교육원에서 연수하는 지금의 방식 외에 각급 교육기관에서도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 대상의 통일교육은 그들이 통일된 조국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이론적·추상적 내용 중심에서 구체적이고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려면 우선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교육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서는 통일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 교육과정에 '통일문



제 연구' 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대학원 석사과정에는 통일교육만을 다루는 '통일교육' 전공 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통일교육 전공 과정에 입학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3년간 통일교육 관련 강의와 연구를 거쳐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는다. 물론 학부 학생들도 졸업논문으로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논문으로 쓰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뿐 아니라 학부와 대학원에서도 정규 교과목으로 설정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통일부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 통일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 앞서 말했듯이 지금의 통일교육 내용은 북한의 여러가지 모습을 단순히 알려주는데 치중한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 같은 언어와 역사를 지닌 동포라



고 해도 50년 넘게 서로 다른 체제·이념·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통일된 후에 하루아침에 어울려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매사에 선택을 해야 하는 점이라고 한다. 선택과 자유를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힘들지 않게 적응하도록 할 것인가? 나아가 우리 사회를 넘어서 외국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북한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체제와 생활 모습을 북한 동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앞에서 우쭐대고 자랑하려 하고, 새터민의 38%가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우리네 모습으로는 통일이 된다고 해도 진정한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북한을 아는 지식의 차원을 벗어나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마음을 심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육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같이 사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는 동네가 다르고 아파트 평수가 다르다고 해서, 입은 옷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자녀들을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앞에서 우쭐대고 자랑하려 하고, 새터민의 38%가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우리네 모습으로는 통일이 된다고 해도 진정한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 체제와 사회에서 오랜 기간 같이 살아온 우리 남한 사회에서조차도 지역갈등·노사갈등·노소갈등·남녀갈등·빈부갈등 등 다양한 모습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북한과 쉽게 동화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기본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공생하는 법을 우리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결국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통일교육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내용에 나와 다른 사람과 기꺼이, 그리고 손쉽게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공존적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도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길일 것이다. 🌱

| 커버스토리 |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

文化로 발산한 한마당 축제

통일교육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통일교육원(서울 강북구 수유6동) 원내 일대에서 ‘하나되어 함께여는 통일세상!’이라는 주제로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학생 및 시민 3천 500여 명이 참가한 첫날 개막행사에는 김홍재 통일교육원 원장의 환영인사와 함께 통일부 홍보대사인 텔런트 고은아양의 개막선언이 있었으며, 퓨전 재즈밴드 ‘더갯하우스’의 통일음악회와 평양민족예술단의 화려한 춤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기간 3일 내내 원내 행사장은 통일열기로 가득찼다. 

편집자주



‘통일염원’을 담아
새터민들로 구성된 평양민족예술단이
화려한 율동의 민속춤을 선보이고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 많이많이 가져주세요”
통일부 홍보대사 고은아양이 행사 참가 학생들
에게 ‘통일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팬
사인회를 가졌다



“통일도 퍼즐처럼 맞춰나가요”
영 맞춰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하나
그 짝을 맞춰나가다 보면 어느덧 완성
되는 퍼즐처럼 우리의 통일도 그렇게
차근차근 맞춰나간다면...





우리랑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여간해서는 볼 수 없는 북한교과서 전시코너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으라차~차, 모요!”
모두들 흥에 겨워 벌이는 통일웃음이 한 판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작년보다 다양해진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안고 찾아 온 학생들의 행사 참여모습



‘통일’ 작품들도 수준급이네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만화로 표현한 전시물



으음... 맛있네!
쉽게 맛보지 못하는 북한음식을 먹어보면서
맛을 음미하는 모습들. “이 음식이름은 뭐예요?”

“이쯤 되면 북쪽 친구들도 반하겠죠?”
서서울고등학교 댄스·밴드팀 ‘청소년 어울지기’가
멋진 포즈를 취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Ⅰ 테마기획- 청소년 눈에 비친 ‘통일’ Ⅰ

· 학생들의 시와 수필로 본 ‘2006년 통일기상’

“남과 북, 그리고 통일...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주관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대학생 포함) 대상 ‘팔도강산 사이버 통일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한 시 및 산문 작품 중 3점을 소개한다. 이번 글짓기 대회 공모주제는 초등학생(우리는 친구), 중학생(가상 혹은 미래의 북한 여행), 고등학생(하나됨을 위하여), 일반인(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 등이었다. 편집자 주

한라소녀 평양가다

〈최우수 산문 - 초등부〉

내일이면 평양소학교로 교환 수업을 가게 된다.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잠이 안 온다. 가방을 챙기고 엄마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다.

현경이가 드디어 평양에 가다.

“안녕! 난 한국 제주도에 있는 신광초등학교에서 교환 수업 온 김현경이야.”

북한 애들은 제주도 애들과 너무 달랐다. 남한 아이가 교환 수업을 왔는데도 평양 애들은 자리에 꿏꿏이 고개를 바짝 들며 앉은 채 무표정이었다.

아마 시끌벅적한 우리 반으로 교환수업 간 리유미라는 친구도 적응이 힘들 것이다. 난 무안한 탓에 류정미라는 선생님이 지정해준 자리로 충충걸음 했다.

“딩~동~댕동~”

한국에서 들던 반가운 소리다. 이 소리가 나자마자 선생님이 나가고 내 자리에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북한 애들도 호기심이 있는 것 같다.

그 아이들의 관심은 나보다도 내가 갖고 간 MP3나 휴대폰이었다.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며 궁금해 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고물이라고 신경도 안 쓰는데.

내 짝 민수가 갑자기 오래 사귄 애처럼 말했다.

“현경동무, 안녕. 너 제주도에서 왔다고? 설명 좀 해주라.”

“그래, 난 김현경이라고 해. 유미대신 일주일동안 너와 짝꿍이 될 거야!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민족끼리 서로문화를 배워보자는 뜻으로 제주도 대표로 여기 오게 되었어. 유미는 평양소학교 대표로 우리 초등학교에 갔어. 유미도 나처럼 신기한 게 많은 거야.”

키는 나보다 한 뼉 정도 작아 보이는데 눈동자는 모두들 빛났다.

“뭐가 신기한데?”

아이들이 합창을 하듯이 물어보았다.

“모든 게 다! 너희들이 빨간 스카프 매는 거하고, 여긴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공부도 신기하기만 해.”

애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이다.

“그럼 제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데?”

“학원에도 다니고 컴퓨터도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지.”

애들은 부러운지 날 우러러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카트라이더나 세이클럽에 대해서 아는 친구가 없었다. 바로 이것이 게임문화의 차이일 것이다. 일주일동안 무슨 얘기로 시간을 보낼지 걱정이 되었다.

다음날은 체력단련시간이 있었다.

북한에는 컴퓨터나 TV문화가 발달은 안됐어도 놀이문화는 최고였다. ‘줄넘기 놀이’ 는 우리 남한에서도 흔했지만 유치하다고 애들도 잘 안하고 재미도 없었다. 평양에 오면서 줄넘기 놀이가 이렇게 재미있고

신나기는 처음이었다. 새끼줄을 돌리면서 손님과 주인으로 나뉘어서 손님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애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하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벌써 오랫동안 사귀어 온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긴장도 풀렸다.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는데도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내가 한심했다. 남한에 돌아와서는 가끔 놀이터나 공원에서 친구랑 놀아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빨리 통일이 되서 우리문화와 북한문화를 합쳐서 재밋고 튼튼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북한 어린이가 손잡고 뛰어노는 그 날까지….

유미는 비행기 속에서부터 신바람이 났다. 맛있는 간식도 먹고 선물도 듬뿍 받았다. 그리고 예쁜 승무원 언니들이랑 사진도 찍었다.

평양소녀 제주도 가다.

“동무들, 안녕? 난 평양소학교에서 교환수업 온 리유미 라고 해. 학생수 엄청 많네. 단 일주일이라도 친하게 지내자.”

교실이 갑자기 시끌벅적 해졌다. 우리 평양소학교랑 판판이다. 우리 선생님이 있으면 쥐 죽은 소리밖에 안 나는데. 정신상태가 너무 자유로운 것 같다.

지은이라는 짝꿍이 우유를 주며 잘 부탁한다고 했다.

‘소젖이네 이걸 우유라고 하나. 맛있겠다.’

북한 친구들의 생활을 이야기 해주니 짝꿍이 어이없어 했다. 너무 답답해 보인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굶어 죽는 친구들은 없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불쌍한 친구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제일 신기한 것은 학교수업이 컴퓨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신기해 보여서 만져보고 싶었다. 난 너무

신기해서 아무거나 눌러보았다. 이야~ 게임이란 것도 처음 봤다. 실컷해보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남한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 줄 몰랐다. 지은이는 한참 말리다가 선생님을 불렀다.

“리유미! 선생님 컴퓨터를 이따 식으로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니!”

사실이었다. 내가 아무거나 누른 탓에 컴퓨터 마우스인가 뭔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나와 지은이를 포함한 애들이 혼났다. 나만 혼나도 되는 데 웬지 미안했다. 하지만 마음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우리 북한 애들과 정을 너무 많이 나눈 탓인지 자꾸 보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현경이네 반 한 동무가 되는 것 같았다.

오늘 현경이가 전화 왔다. 어떠냐고 물어 보길래 난 기쁜 목소리로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평화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 풍경이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도 했다. 현경이는 금강산이 한라산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다음날은 한라산 등산이 있는 날이다.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에서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현경이를 불러보아야 하겠다.

지금처럼 하루가 아닌 평생 우리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나라이름을 뿔로 하지?

엄마가 들어오면서 부르는 바람에 잤다. 서둘러 다시 짐을 챙겼다. 북한 애들에게 줄 선물도 잊지 않고. 📺

김현경 제주신광초등 6년



북한 여행, 그리고 약속

동무, 우리 북조선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
들뜬 마음에 누른 '확인' 버튼
명순이라는 댕기머리 아이가 손을 흔들며
수줍게 웃고 있었다.

여기가 경선 만월대라.
오백년 동안 고려 왕실이 있던 곳이지비.
송악산 기개가 푸르다,
고려인의 기상이 어려 있는 듯 푸르다.
저땐 하나였는디…….
아이 눈에 슬픈 눈물이 핀다.

말없이 선죽교 돌다리 위를 걸었다.
정몽주 붉은 냇이 아직도 물들어 있다.
두 임은 못 섬기겠단던 그 뜨거운 피가
분단이 웬 말이냐고 호령이라도 하는 듯 하여…

산을 오르며 그 애가 조심스레 꺼내놓은 말
우리 할아버지도 남쪽에 있다.
할마이 맨날 우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실까?

알록달록 꽃피는 산걸음이
마음속에 아프게 꾸욱 눌러 찍혀
돌아오는 길까지
금강산 메아리가 멀리도 따라 나왔다.

동무, 담엔 남쪽 구경시켜 주소.
목이 메어 고개만 고덕였다.
우린 말없는 약속을 하고 왔다.
'통일'이라는 작지만 큰 약속을. 🌍

조혜리 인천 인주중 3년

하나됨을 위하여

하늘 높이 올려 퍼지는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
장구와 팽과리가 만나
웃음을 만들어내고
북과 징이 만나
미소를 만들어낸다.

농악대의 뒤를 쫓아오는 꼬마들의 웃음과
새참을 이고 오는 아낙네들의 즐거움이
맑게 솟아난다.

열심히 일하는 사내들의 이마에 맺히는 구슬땀은 흘러
넉넉함을 만들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노래 가락은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

서로 미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는 하나였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어우러져 하나로 살아갔다.
풍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악기대신 총을 들고 서로에게 겨누며 살아가게 된 것은,
서로 미워하고 우리라는 말을 짓밟고
구슬땀대신 눈물과 피가 흘러내리는 이 땅에 늘어나는 것은,
햇볕조차 받지 못한 무덤들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한과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미움이 넘쳐버린 이 곳에
노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총을 겨누지 말자.
서로를 미워하며 자라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해주자.

먼지 쌓인 악기를 울리자.
우리 모두 신나게 놀아보자.
거짓된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놀아보자.
남에서 북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손을 잡고 놀자.
그 행복했던 옛날처럼.
우리가 하나였던 시절처럼.

그때가 되면 무덤 위에도 햇볕이 내리겠지. 🌞

최아름나라 혜성여고 2년

· 통일여행 참가 초등학생이 말하는 '신나는 통일여정'

선생님, 선생님!! '평화'도 '통일'도 이렇게 재미날 수 있잖아요!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람직한 평화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로 진행되는 현장교육체험 '도라산 평화여행' 프로그램. 특히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6일(매주 토요일) 까지 열렸던 이번 제2회 행사내용 중 철조망 너머 비무장지대가 훤히 보이는 도라산 驛舍에서 열린 평화염원을 담은 미술체험교육행사 '희망의 솟대 만들기'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응이 특히 좋았다는 평... 행사참가 어린이들의 후기를 통해 통일을 그리는 그네들의 맘속으로 들어가 보자.

편집자 주



〈제2회 도라산 평화여행 참가후기-1〉

북쪽 친구들아, 우리 기차타고 꼭 만날 수 있겠지?

북쪽 친구들에게.
얼마 전에 난 도라산 평화여행을 다녀왔단다.
서울역에서 기차타고 도라산역까지 갔다 왔지.
도라산에 올라가서 도라전망대에서 너희 땅을 조금 보고
왔어.
우리랑 비슷하더라~ 하긴, 우리랑 같은 땅이니까...

또 도라산역에서 국제선 수속체험을 했는데
가고 싶은 곳들을 얘기했더니 여권에 역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
개성 · 평양 · 베이징 · 모스크바 · 파리까지 모두
팡팡팡팡...
사실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은 가족끼리 진짜 다녀왔어.
비행기 타고 다녀왔는데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명예 역장님도 그러시더라. 우리나라가 대륙에
있는데도 섬 아닌 섬이 돼버렸다고.
왜냐하면 외국에 나갈 때 꼭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니까.
북쪽으로 기차를 타고 달리면 유럽까지도 땅으로 다닐
수 있는데 말이야.
너희들도 우리랑 대륙열차 타고 유럽까지 쭉~욱 가고
싶지?
우리는 도라산역 기차길에서 솟대를 정성껏 만들어
너희 땅을 향해 솟대를 꽂고 왔어.

내가 만든 솟대가 보이니?
글도 썼는데 '북쪽 친구들아 기차타고 꼭 만나자' 라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 노래를 불렀단다.
나는 너희들과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우렁차게 불렀어.
너희들도 힘차게 불러줘... 너희들도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노래를 불러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누가 작곡했는지 아니?
안병원 선생님께서 작곡하셨어.
난 안병원 선생님을 잘 안단다.
전에 안병원 선생님 지휘에 맞춰 '우리의 소원' 노래를
불렀었거든.
작은 평화중창단에서 미국 공연 때도 안병원 선생님과
같이 했단다.
내가 공연하는 모습을 TV에서 본적이 있니?
아참, 남쪽 TV를 너희들은 못 보는구나.

북쪽 친구들아, 우리 기차타고 꼭 만날 수 있겠지?
내가 이번 기차여행을 하면서 기차 안에서 북쪽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어.
북쪽말도 많이 외워놔으니까 우리 만나면 얘기가
될거야.
서로 단짝인 친구를 짝동무라고 하고 만화를
이야기그림, 볶음밥을 기름밥,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 축구의 프리킥을 별차기, 양계장을
닭공장이라고 하더라. 초등학교는 소학교라고 하는데
4년 다니고, 중학교는 6년, 고등학교라는 말은 없고,
북한의 국보 1호는 평양성... 이만하면 같이 얘기하며
기차여행 할 수 있겠지?
우리 꼭 통일이 돼서 기차타고
서울 · 개성 · 평양 · 베이징 · 모스크바 · 파리까지 함께
여행하자. 알겠지? 꼭이다~ 약속.
편지해~여기로, naver.com/lovedarren3
남쪽 친구가. 📧

김동현 고양화정초등 3년

〈제2회 도라산 평화여행 참가후기-2〉

남과 북이 ‘모두 행복’해 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해요



7월22일에 ‘달려라 꼬마열차! 유럽까지 쭉~욱 도라산 평화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임진강역으로 간 다음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으로 갔습니다. 도라산역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국제선역이라고 합니다. 도라산역에서 기차를 타면 개성·평양을 지나 베이징·모스크바·파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직 기차가 북한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양도, 파리로 갈 수 없었습니다. 도라산역까지 가는 동안 우리 조는 기차 안에서 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 남과 북의 새 희망, 우리 함께 외치면 통일하리라, 2조! 2조! 화이팅!”

점심을 먹고 도라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북한의 마을 모습도 보였습니다. 군사분계선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경치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서 구경하고 싶었지만 군사분계선 때문에 맘껏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땅을 드나들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입니다. 다시 도라산역에 와서 ‘국제선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비행기 탈 때처럼 여권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명예 역장님이 돼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나는 파리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길 위에서 ‘희망의 솟대 만들기’도 했습니다. 새 모양의 솟대에 예쁘게 색칠을 했습니다. 새는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칠했고 막대 부분은 무지개색으로 칠했습니다. 물감이 옷에 묻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색칠을 다 한 다음에는 깃발도 매달았습니다. 깃발에는 ‘모두 행복’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언니는 ‘평양 하늘에서도 날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솟대를 철로 옆에 세워두고 우리는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끊어버리고, 북한사람들과 남한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개성·평양·신의주와 서울·대구 등을 함께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동생은 북한말과 남한말로 퀴즈를 자주 냅니다.

“아이스크림은 북한말로 뭐지?”

“얼음보숭이!”

“그럼 도시락은 북한에서 뭐라고 하지?”

“곽밥!”

퀴즈를 할 때는 재미있지만 속상한 일입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이 서로 안 통해서 못 알아듣게 된 것은 6·25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와 북한은 서로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는데 북한만 못 간다는 것도 속이 상합니다.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못 가다니...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서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평화통일을 망치려고 무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어린이들과 맛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고, 북한말과 남한말을 서로 배워 사이좋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규연 서울마포초등 2년

통일교육은 특별한 게 아니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실과 방향

통일교육이란 단어는 우리가 학교나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듣는 단어이다. 그래서 인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통일교육은 늘 하고 있는 듯 착각이 들 때가 많다. 그러나 막상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질적인 통일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너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왜일까?

“통일교육 내용은 우리 교사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통일 관련정책에 교사인 우리도 우왕좌왕합니다.”

“학교에서 교육할 게 어디 통일교육뿐인가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게 된다. 도덕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 외에 통일교육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경우는 학교장이 특별히 관심을 쏟거나,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있거나, 시범학교로 지정되었을 때이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과정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나마 서울교육청 시책 중점사업 중 한 부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은 피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통일교육은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 과거 반공교육이 교과서가 없이도 모든 교사들이 전 교육과정 속에서 시시때때로 다루었고, 사회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온 국민이 함께 교육에 동참한 것은 하나로 합의된 국민적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통일교육은 국민적 정서도 진보냐, 온건이냐, 보수냐 등의 다양함은 물론 변화의 역동 속에서 교육자들도 기피하고 싶은 ‘뜨거운 감자’ 같은 영역으로 쏠리게 되었다. 때로는 일부 단체의 북한 동조 교육이 매스컴에 클로즈업되면서 학교 책임자들은 ‘통일 교육’ 하면 부정적 시각부터 갖고 통일교육의 확대를 꺼려하는 경우



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 교육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육적 원론을 지켜야만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피할 수 없는 과업임이 분명한 것이고,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일인 것도 분명한 일이지 않는가? 그리고 통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는 학생들에게 달려있으므로 학교교육에서 기피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생활 속 감정이입으로 통일의지 내면화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이 분명하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각급 학교에 통일교육 계획을 제시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06년도에 제시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친숙하지 않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 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감흥을 갖도록 정서적 접근·실용적 접근을 해야 한다.
- 다.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내면화시켜야 한다.
- 라. 남과 북의 ‘같음’과 ‘다름’을 인식하되, 긍정적 다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마. 분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는 통일의지가 내면화될 수 있어야 한다.
- 바.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한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어린이들 생활에서부터 접근하여 감정이입을 시킴으로써 통일의지를 내면화시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통일교육 의지가 우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안내한 학교통일교육 방법은 통일교육을 도덕·사회교과 중심에서 전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 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 교과활동 - 도덕·사회 교과뿐 아니라 전 교과에서 통일교육 관련내용 추출하여 지도하고 대화·토론학습·역할극 등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활성화
- 재량활동 - 교과학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비교과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 주제로 활용하고 학교·학년·학급별로 실천 가능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성·실천
- 특별활동 - 개발활동 부서 운영, 통일토론회 개최 등 통일관련 행사 개최

위에서 제시한대로 추진할 수만 있다면 통일교육은 더 바랄 것이 없다. 도덕의 통일교육 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과교육에 통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지도하는 활동까지만 가도 학생들에게 파급되는 통일의지의 내면화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려면 교사가 먼저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통일교육, 쉽게 학교행사와 접목할 수 있다

독일은 한번도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을 했다고 한다. '정치교육'의 한 영역으로 '독일문제교육'이라는 틀로 민족의 동질성과 평화정신을 키워갔다. 두 체제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는 동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교육을 했다고 한다.

우리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접근에 있어서도 이질성의 비교보다는

함께 살아갈 미래 한국인 육성에 초점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기본 생활교육과 인성교육 자체가 넓은 의미의 통일 준비교육이라고 볼 때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매우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동학년 합동체육시간에 많이 하는 민속놀이 탐방시간에 대주제를 '남북한 공통 민속놀이 탐방'으로 정하고 '북한어린이도 즐겨하는 제기차기', '신의주 얼음판 위에서', '웃놀이' 대신에 '팽이치기', '평양의 웃놀이' 등으로 코너이름을 정한다면 어린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남북한이 같은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한 민족임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학교방송 시간에 방송반 어린이가 훈화 자료인 '통일로 미래로(2000)' 책자를 낭송해 보는 것도 방송의 위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셋째,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구체적으로 활동해 보는 교내 '꿈나무통일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해보자.

넷째, 학부모와 연계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부모 연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통일시조짓기 대회'를 하는 방법도 특징 있는 통일교육이다. 이 행사 역시 학부모를 통일교육 현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에게도 교육의 효과가 미치게 되는 일석이조 행사이다.

이 밖에도 학년 체험학습일에 현장견학·학예발표회 프로그램에 한 두 개 정도 북한 민요나 동요를 구성해보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겠다.

기존 교육시간에 '연계교육활동' 등 강구

교사들이 단 한 시간만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통일수업을 할 때, 교사의 통일의지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교사들이 곧 성공적인 통일교육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통일교육에 큰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꼭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치적 교육도 아니다. 약간의 관심만 기울이면 이왕 하는 교육시간에 연계 교육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다만 이런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이나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과교육연구회 단위의 지속적인 통일 분야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경자 서울등촌초등학교 교감

내 일, 네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인 남북통일이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안타까워 통일교육에 관해서는 늘 관심이 쓰인다는 본인은 통일은 "요책이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으나 어느 날 문득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 확신한다고



자긍심, 자아 존중감 함양이 우선

사례로 보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교육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25년 교편생활 중 15년을 상담실에 있으면서 부적응학생, 요선도학생 및 고민이 있는 학생 등 소외되는 학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중, 2003년도 후반기에 새터민 여학생을 포함한 친구들을 15회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하면서 새터민 학생의 고충과 어려움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턱없이 부족한 새터민 학생지도 자료

2004년도에 새터민 신입생 10명이 추가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명의 새터민 학생이 본교에 재학하게 되었는데, 적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새터민과 관련한 대학 및 상담기관의 연구논문·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새터민 청소년 및 새터민 학생에 대한 적응의 실태조사만 있었을 뿐,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연구자료 및 활동 프로그램이 거의 全無한 상태였으며,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봐도 실태 조사만 있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결론이어서 교사의 입장에서 난감하였다.

학교 상담실에 있으면서 남한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심성수련 및 적응 프로그램 활동 등을 실시하고 상담교사 대상으로 연수강사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새터민 학생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척자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사회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 기억에 남는 새터민 학생

무역경영이 꿈인 ‘또래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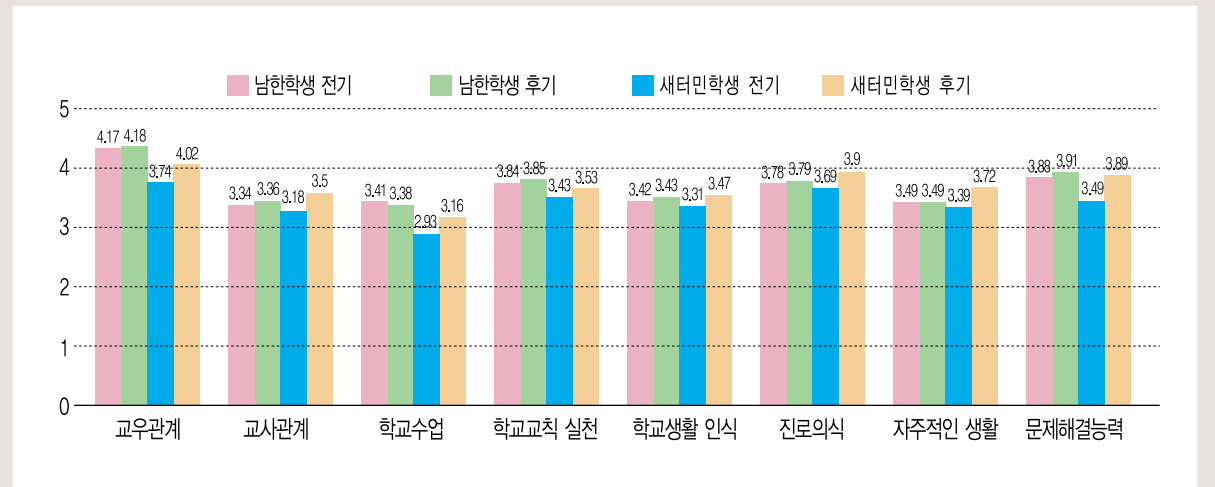
김○○ 학생은 2004년 9월에 부산에서 1학년으로 전학온 학생으로, 답임을 맡아 지도하면서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데다 매사 의욕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생활하여 본교 새터민 학생들의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새터민 학생들 대상의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 학생들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등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학생이었다.

같은 학년 남한학생보다 2살이 많고 북한의 명문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였던 학생으로 본교의 학교 성적은 평균 80여 점이지만 새터민 학생으로서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다. 2005년 2학년에 진급하면서 빨리 대학에 진학하

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수시로 상담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2시간 30분 동안 상담끝에 제도권 학교보다 대안학교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 및 스스로 공부하여 진학하기로 협의하였다.

중·고등학교를 단시간 내에 검정고시로 합격하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 및 졸업 후에, 중국의 명문대 칭다오대학교를 유학하여 구체적인 무역 경영사업자의 꿈을 가진 학생이었다. 2006년 4월 고입 검정고시에서 98점의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으며 8월에 대입 검정고시를 치른 직후 4개월 정도 중국으로 공부하러 떠났으며 금년 12월 한국에 입국하여 지속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다.

〈2006학년도 학교생활 적응력 변화〉



새터민 학생 지도상 교육현장에서의 고충

초기에 새터민 학생들과 개개인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친밀한 관계형성이 쉽지 않은 개인상담보다 우선 집단 체험학습 적응프로그램을 구성해 실시하였다. 학생들간의 그리고 사제간 친밀감 형성과정에 써 어렵고 힘든 점이 노출되었지만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서 자긍심과 자아 존중감이 함양되며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과 함께 바람직한 학교생활로의 적응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폭력 등 문제성 있는 요선도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하면 초기에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재미있게 역동적으로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그런데 새터민 학생을 대상으로 적응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할 때 초기에 몇 명은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참석을 하더라도 상당수가 속마음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표면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활동에 임하여 진행하는데 남한 학생들보다 2배 이상 힘들었다.

나중에는 새터민 학생들의 반응 상당수가 환경변화에서 기인한 독특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공안 당국에 붙잡혀 북한에 송환되는 두려움, 남한 입국 과정의 공포, 남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소외감·따돌림에 대한 걱정 등의 불안한 심리적인 상태로 삶의 생존을 위하여 확실히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속내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학생들에게 집단 체험학습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할 때 동적인 프로그램 활동에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정적인 활동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깊이 있게 생각하

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면의 성찰이 적어 변화의 속도가 느린 편이라 할 수 있다.

학업에만 매진하지 못하는 현실

2004년도 전반기에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면 새터민 학생들끼리 만나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과의 만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새터민 학생들의 집단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활동참석을 통해 유익한 도움을 받고 상담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극적인 학생들이 좀더 의욕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다.(※새터민 학생의 적응교육 활동내용 22P 참조)

새터민 학생들은 학력이 상당히 낮아 학교수업 따라가기를 힘들어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내용의 난이도가 높아져 더 힘들어했다. 특히 3학년 남학생 70%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피자집·치킨집 배달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피곤한 몸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학업을 포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지도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



한상훈 금곡중학교 진로상담부장 교사
새터민 청소년들이 사회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며,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가꾸어 멋진 삶을 영위하는 사이 남북이 통일되어 자연스런 원래가 이루어지는 감격의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대해본다

새터민 학생의 적응교육 활동내용

1. 상담활동

새터민 학생들의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 및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문제 등을 수시로 학부모와 연계하여 상담을 하였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찰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효율적인 대화 방법'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담임, 교과담당교사와 연계하여 지도상 어려움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에 협력 체제를 맺고 지도하였다.

2. 집단 체험학습 적응프로그램 활동

2004학년도부터 매월 방과 후 80분 정도씩 주제(친해지기·타인이해·공동체 의식·의사소통·협동심·신뢰감 형성·자신감·문제 해결 능력·목표 의식·자긍심·학습 능력·진로의식 등 함양하기)별로 프로그램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적응능력 신장이 되도록 하였다.

3. 체육 활동

새터민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므로, 축구·농구와 건전한 운동인 탁구·배드민턴 등 탈북학생들끼리 운동을 하기도 하고 남한학생과 어울려 함께 운동하여 건전한 교우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4. 야영활동 및 수련활동

단체 생활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여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며 성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1박2일의 야영활동을 본교에서 실시하였고 또한 대전 바닷가에서 수련활동도 하였다.

5. 여가선용 활동

새터민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의 심각한 중독성과 주변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이나 따돌림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실에 장기·바둑을 마련하여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한학생들과 함께 두는 경우가 늘어나 친구 사귀기 훨씬 많아졌다.

6. 요리하기

북한에서의 남존여비 사상이 새터민 학생들도 강하게 남아 있어 남녀의 성역할에 따른 마찰이 있는 편이어서, 본교 가사실에서 남녀가 서로 협조적으로 함께 음식요리 및 설거지를 하도록 하여 남녀의 성역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7. 학생 자원을 활용한 1:1 도우미 활동

또래상담원이 새터민 학생과 결연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친구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습도우미가 숙제·공부 등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8. 방과 후의 학습활동

본교가 방과 후 활동 시범학교로서, '새터민학생 기초 학력 신장반'을 개

설하여 국어·영어·수학 등 과목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9.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역사회의 새터민 학생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신월동 소재)와 연계하여 방과 후에 학력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봉사단 학생과 결연한 학습활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학생 43명과 새터민 학생이 결연하여 2006학년도에 토요 휴업일마다 본교에서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11. 새터민 대학생 초청강연 및 간담회

새터민 학생으로서 대학생 된 청소년을 초청하여 성공사례를 듣고 질의응답의 간담회를 통하여 진로의식을 갖고 미래의 꿈을 향한 도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2. 새터민 학생 가르치기 캠프 활동

하계방학(05. 8. 1~6) 중에는 금옥중학교에서, 동계방학 중(06. 1. 4~6)에는 2박3일 동안 경기도 용인 소재 모현야영교육장에서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의 협력 하에 초·중등 새터민 학생 30여 명씩을 모집하여 무료로 캠프를 실시하였다. 현직 교사 30분이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의 교과목과 특별활동을 담당하여 개인지도 형태로 수업을 하였다.

13. 성격유형검사 및 워크숍 활동

MBTI 16가지 성격유형의 이해를 통한 원만한 교우관계 및 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4. 실업계 고등학교 방문 견학

3학년 새터민학생을 대상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등 방문하여 진로의식을 고취시켰다.

15. 새터민 학생에 대한 배려

① **호칭에 대한 배려** 탈북학생 호칭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전 교사들에게 공모하여 본인의 제안으로 2004년부터 '누리학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누리학생'은 '북한에서 살았으며 남한에서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생활하는 학생'이다.

② **초대장 활용** 적응 프로그램 활동 및 모임이 있을 시 학생들에게 직접 초대장을 전달하여 자긍심을 갖고 참석하도록 하였다.

16. 교사와 학생의 간담회

신학기 초에 새터민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다. 중종 피자 및 인근 분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며 북한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등을 나누면서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Multimedia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학교통일교육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비주얼 학습 Tool’

- 남북한 문화 이해를 통한 평화와 안보의 균형적 통일관 기르기 -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1. 목적 및 필요성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북한 신뢰 회복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도 역시 남북한의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상호이해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상호 이해교육’은 학생들이 부정적이고 대립적 북한 인식에서 벗어나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에게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고 남북한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된 통일 환경에 맞추어 현재의 분단 상황에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을 신장시키고, 어느 한쪽의 이념에 치우친 편협한 통일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보가 균형 잡힌 통일관을 기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런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학생들이 통일을 배우는 주 교재인 교과서는 특성상 남북경제 협력문제나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의 변화양상과 같은 급변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흐름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남북한 상호이해교육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이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들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미디어 자료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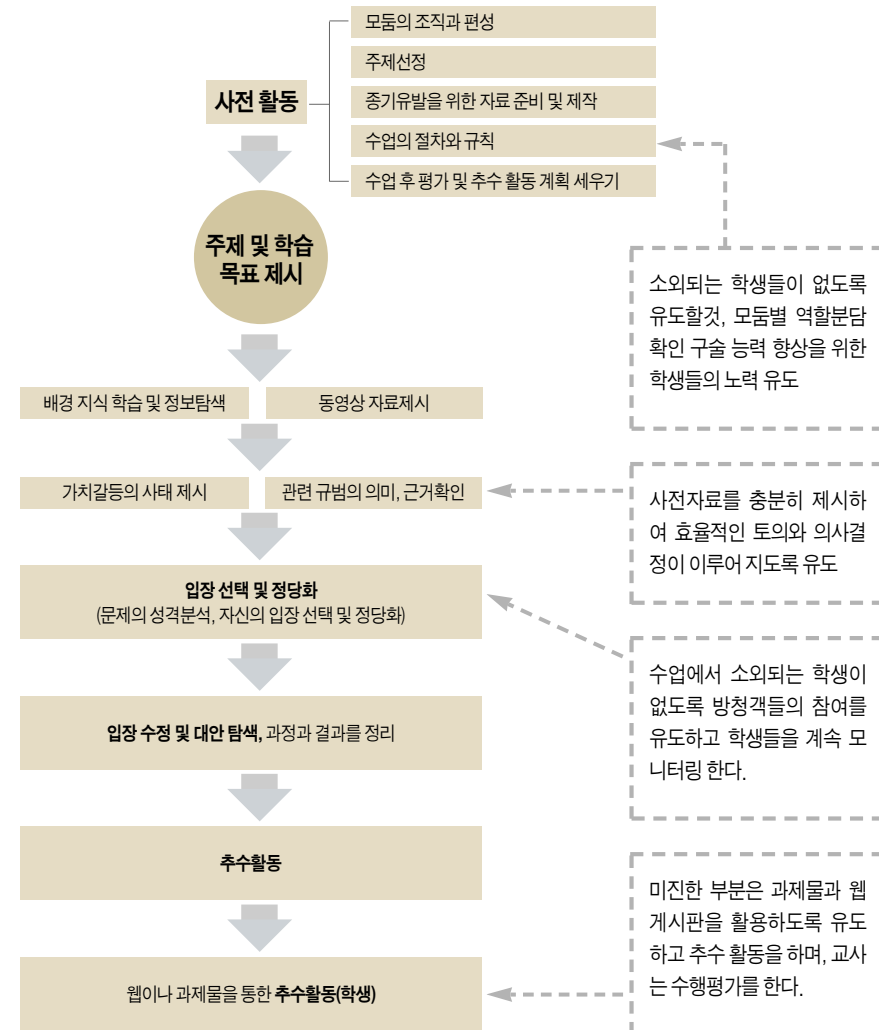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68%)

II. 남북한 상호이해교육의 방향설정

컨텐츠개발에 앞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1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했을 때 69%의 학생들은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17%)’ 내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10%) 인식도 적지 않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사람에 대해서는 ‘한 민족’(13%) 보다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68%)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렵다’(48%), ‘관심이 없다’(25%), ‘현실성이 없다’(13%) 순으로 응답하여 주입식 학교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학생들이 꼽은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법으로는 ‘동영상 활용’(41%), ‘인터넷 모둠수업’(25%), ‘만화·사진 활용’(21%)이어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평화 통일교육 방법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수업진행 흐름도



※ 수업 설계서 예)

교과명	도덕·윤리	대상학년	1학년	대단원	II-2.민족분단과 남북한의 사회문화 비교		
소단원	남북한의 생활문화			학습주제	남북한 상호이해교육 화해와 협력의 평화통일 교육		
차 시	1-2/2	교재	유인물	적용모형	ICT활용 가치갈등	교실환경	모둠학습 교실
학 습 목 표	• 남북한 상호이해 교육을 통한 평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건전한 국가관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자세를 기른다.				• 안보와 관련된 국가정체성, 화해협력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교과명	교수·학습 활동 내용	ITC 활용유형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자료
도입	모둠 구성 및 교실 재배치 사전과제- 모둠별 정보 수집 가치갈등상황 관련 자료 예시 • 북한주민의 실제생활, 남북한 교류, 안보·국가 정체성 관련 상황을 대표하는 영상자료 편집: '어떤 나라', '간 큰 가족', 손예진의 개성공단 홍보 동영상, 남북공동응원, '태극기 휘날리며', 서해교전 관련뉴스 등 • PPT로 학습목표 제시	정보 탐색 및 분석	가치갈등 학습	VCD·DVD 영화·사진자료·민족공동체의회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
준비	관련 규범 확인 및 명료화하기 • 문제 사태와 관련된 규범을 PPT로 제시 문제 사태의 성격 분석 • 문제사태의 성격 분석을 위하여 관련 사이트의 정보를 탐색하도록 장려		토의·토론형 수업	
전개	모둠별 주제 중심 토론1-자료정리 •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패널들의 입장정리 모둠별 주제 중심 토론2-실제토론 (입장을 선택과 정당화 근거제시) • 손을 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투표 •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제시	동영상 활용 정보탐색		
정리	입장 정리 및 평가 • 토론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하기 • 수업전과 후의 입장이 수정된 학생이 있는지 학습지 작성과 수업목표 명료화 피드백 실시			

출처 : 도덕과 ITC활용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개발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PP.277-279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배양

III. 남북한 문화의 상호이해를 통한 수업 전략 짜기

1. 북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 준비

북한 문화의 이해와 관련된 영화와 동영상 자료로는 북한주민의 실제생활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어떤 나라’와 북한 노동자의 일상을 제작한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활용한다.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는 국내 영화 ‘간 큰 가족’이나 ‘강충이가 준 약’ 같은 북한의 만화를 활용할 수 있다.

2. 남북한 문화교류 및 안보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준비

남북한 문화교류와 관련된 자료로는 2005년 9월 아시아 육상경기대회 북한 응원단 관련 동영상 자료, 2002년 SBS의 평양공연과 관련된 자료인 ‘평양에서의 7일’, 2005년 가수 조용필의 평양공연 동영상 자료, 2006년 3월의 이산가족 상봉 자료, 2006년 4월에 제작된 영화배우 손예진의 개성공단 홍보관련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안보와 관련된 자료로는 서해교전 관련 동영상 자료 및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태극기 휘날리며’ ‘JSA’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3. 가치갈등 상황의 제시

남북한 문화의 상호이해에 있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가치갈등 상황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학습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IV. 결론

1.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 남북한 상호이해 교육환경 조성

남북한 상호이해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골든벨 퀴즈' 나 '장학퀴즈' 같은 방송 프로그램 활용, 학생 금강산 체험학습 등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과 남북한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교육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불쌍하다. 무조건 싫다"는 등의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2. 상호이해 교육의 홍보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학교통일교육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급변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흐름, 남북한 학생들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상호이해를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남북경제협력문제나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변화양상을 담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문화에 대한 현실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의 내용도 이전의 교과서보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많이 변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한 문화와 교육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사나 학생들의 기대를 채워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통일환경 속에서 상호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수업모형과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남북한 학생들의 상호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상호이해 교육은 학교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⑥



최남현 옥련여고 교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각자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통일을 향한 깨달음이라고

※ 동기유발을 위한 미디어 자료 제작 예)



〈관련 미디어 자료〉 북한주민의 실제생활 - '어떤 나라', 조용필의 평양공연 동영상, 손예진의 개성공단 홍보 동영상

사회통일교육 활동 첨부 '통일교육문화원'

우리네 생활 속 '문화운동' 으로 전개

정 치적·이념적 통일운동보다 현실과 문화를 통한 생활 속의 통일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평화통일의 과정에 주인이 되어 평화·문화·나눔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통일교육문화원!

90년대 후반부터 통일운동은 민간을 통해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식량난은 자발적인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국내 통일교육의 부재와 다소의 혼선은 북한에 관한 이분법적 반공교육을 지속시켰으며 그 결과 북한을 함께 살아가게 될 민족으로 보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그리고 통일이후에 발생될 후유증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였다.

문화를 통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통일교육

이에 통일교육문화원은 일상생활과 문화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방향을 정하고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에 따라 이루어 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오랜 시간동안 통일에 관한 논의와 문제해결은 정부의 의지를 크게 반영하여 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었기에 통일은 동이라고 하면 웬지 무겁고 낯설고 마땅한 꺼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왔다. 이에 통일교육문화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현재 300여 개 학교 및 단체에 3만 5천여 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서울시 7개 중학교의 CA반(통일시사반·북한연구반)을 위탁받아 1년 동안 한 학교당 최소 8차시(1차시 평균 3시간)에서 최고 14차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서울시 시정참여사업으로 '찾아가는 평화마당'이 채택되어 각 학교와 청소년수련과 교회와 단체에 평화교육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2005년 행자부 시민지원기금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일세상'이 채택되어 시각장애인용 점자 통일교육교재 개발 및 시각장애인용 음성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 점자책과 오디오 드라마, 오디오 강의는 '모두가 함께 하는 통일교육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획되었는데 시각장애인과 함께 분단지역인 철원, 금강산 등지를 돌면서 '소외가 아닌 함께'라는 의미를 제작과정에서부터 실현시킨



이 교재는 출간 일주일 만에 '재밌다', '이 책 또 언제 나오냐?' 등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중학생용 애니메이션 및 영상제작 사업으로 진행된 '이슬이의 북한 방문기'는 통일교육원 지원으로 개발된 것으로 본 단체 김정민 원장의 북한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본 문화원의 미디어팀이 제작한 것이며, '어떤 꿈을 원하세요'는 평화패키지 프로그램을 위해 연극을 영상화 한 것이다. 이외에도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의 3장을 집필하고, '통합통일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24차시 교육시안, '평화패키지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한편, 문화적 접근·생활 속의 통일을 위한 체험 통일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족단위·공동체 단위 등 참가자 특성에 맞는 패키지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통일교육이다. 그리고 나눔을 통한 하나됨을 위하여 '북한 소학교 교육환경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추후 남북 학생간의 사회문화 교류와 남북한 교육 및 학술교류 추진에도 염두를 두고 있다. ⑥



김경민 통일교육문화원 원장

우리 모두가 자기 삶 속에서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 통일을 바라보았으면...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통일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이 운동은 어느 한쪽에서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님을 절감한다고

교육현장에서 연구하는 ‘미래 통일한반도’

통일교육 교사들의 모임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우리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회장 마포초등학교 교장 김정서)는 2002년 4월, 다가올 통일 한국의 교육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탄생하였으며, 2006년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

새 천년이 열리면서 개최된 6·15 남북정상회담은 분단과 대결의 한 민족을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 이후 남북교류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으며,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크게 진전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민족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노력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우리의 학교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족 동질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다양한 교수 방법과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담론이 주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전의 냉전구조 재생산적이었던 반공교육은 물론, 그보다는 약간 진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통일안보교육에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정도의 교육 성취에 만족하고 이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의 후손을 가르치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교사로서 통일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교육목표가 분명히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자신의 인격을 함양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되, 그들이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민족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시킬뿐더러, 나아가 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다.

100여 명 회원등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그런 뜻에서 본 연구회에서는, 이때까지의 통일교육의 성취를 밑거름 삼아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우선 북한사회를 실증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 이후의 교육현장을 담당할 교사들이 북한사회의 현재를 가감 없이 낱낱이 이해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정립을 위한 인식의 기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둘째, 그 바탕 위에서 북한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인적·물적 자원 교육체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서로 이질화되어 있는 민족 후손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남북교육의 변증법적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셋째, 남북한 사회 및 교육체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 교사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교육체제를 구안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에 우리 한 민족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통일 이후의 교육입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북한사회의 실증적 이해에 중점

이와 같은 취지 아래 그동안의 성과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매년 5~6회 정도 ‘일일 북한실상 이해’ (북한자료센터)라는 주제로 자율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 영화 감상, 최근 탈북자들의 강연 및 대화 등 최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경의선 체험(도라산 일대)·철책 순찰체험(철의 삼각지 일대)·북한 교과서 탐구 및 DMZ 체험연수·새터민학생과 함께하는 수련회(카프라썰기·전통예절·포크댄스·레크레이션·탈북교사 및 탈북 학부모와의 대화)·새터민학생 학습지도(금옥중학교 - 생활지도 및 놀이문화 체험 등)·새터민학생 가르치기 캠프(모현야영장 - 탈북 학생 교과별 지도·사물놀이·비즈공예·암벽 등반·친교활동·롯데

월드놀이 체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과 연계하여 통일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 왔다. 예를 들면,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가상 체험학습’, ‘초·중·고 통일 교육 ICT 교수학습자료’(책자 및 CD), ‘새터민학생 남한 학교생활 적응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였으며, 2006년 현재에는 ‘새터민 학생용 진단평가 문항지’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된 자료는 다음 카페(<http://cafe.daum.net/dukang>)에 탑재하여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노력

앞으로도 우리 연구회는 남북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일 한국의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 전문가집단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연구 및 학습자료 개발, 지속적인 자율연수 및 직무연수 개최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국 규모의 연구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회원 확보 및 유관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학교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를 초월하여 통일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통일교육 관련활동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



이영호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홍보국장·마정중학교 교사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통일 이후 조국의 미래상을 그리며 준비해 가는 것도 백년대계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의 몫이 크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임원

- 회장: 김정서(마포초등학교 교장)
- 부회장: 최안기(영동중학교 교장) 최경자(등촌초등학교 교감)
- 감사: 이양재(당곡고등학교 교감) 박찬수(이수중학교 교사)
- 사무국장: 윤기홍(한강전자공고 교사) 송두록(서울고등학교 교사)
- 연구국장: 정순미(석관고등학교 교사)
- 연수국장: 한상훈(금옥중학교 교사)
- 조직국장: 유은진(성서중학교 교사)
- 홍보국장: 이영호(마정중학교 교사)
- 재정국장: 백미옥(중원초등학교 교사)

아니, 이렇게 예뻐 수가!

고등학교 1학년 새내기들이 우리나라에 갓 입국한 새내기 새터민 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 원외국어고등학교 독어과 1학년 이용원 학생과 같은 학교 불 어과 박라경 학생이며, 새내기 새터민학생들은 중동중학교 1 학년 송모 군과 그 동생인 대청초등학교 6학년 송모 군이다.

그들의 봉사활동 수업은 매 2주마다 돌아오는 토요 휴업일 에 송모 형제가 살고 있는 일원동 아파트로 가거나 또는 마포 에 있는 이용원, 박라경 학생 집으로 각각 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루어진다. 새터민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영어를 중심으로 하되, 교과용어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수 학도 곁들여서 진행된다.

이 군과 박 양은 내로라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 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 공부 부담이 클 터인데 도 전혀 그런 내색이 없다. 오히려 밝은 얼굴로 새터민 학생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에 적극 팔을 걷어붙여 나서고 있어서, 정 말 대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기존에 무슨 새터민학생 관련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참가한 것도 아니다. 이용원 학생이 아버지 인 이창호(45·국회의원 보좌관)씨로부터 새터민학생들이 학 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을 전해 듣고 스스로 봉사활동을 해 보고자 친구 라경이와 뜻을 같이 모아서 하게 되었다니 더더욱 기특한 일이다.

그들은 분명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 했었다. 그러던 것이 순 식간에, 평소에 자주 만났던 사촌 형제들처럼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것이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스스로 물어보고, 아는 것 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진심이 통하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통일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런 형태의 봉사활동이 갖는 의의는 그 뿐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 풍토는 학원 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이런 교육 추세가 새터민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교육은 오래 학교에서 알아서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 그 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뜻밖에도 자녀들로부터



학원을 다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통 난감해하지 않는다.

송모 형제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었다. 학원에 보내 줄 돈은 없는데 아이들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보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통에 너무 속상 해 있던 중이었다. 그런 참에 본 연구회의 주선으로 이런 형태 의 학력 보충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만족해 하니까, 이번 일 을 계기로 남한 사회에서의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서 참 좋다는 것이다.

사실 통일의 길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남북한 주민들간의 인정이 쌓이고 쌓이면 그제 바로 민족 통 일이고, 한반도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 에서 볼 때 이런 형태의 봉사활동은 정말 여러 가지 점에서 바 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군과 박 양, 그리고 송모 형제의 만남이 다시금 기특하고, 이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 의 앞날이 지금처럼 계속 밝고, 맑고, 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 한다.

송두록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사무국장 · 서울고교 교사

‘탈북자’가 아닌 ‘뮤지션’으로 봐주세요

새터민 출신 5인조 그룹 ‘달래음악단’



지난 10월 5일 하나원에서 새터민들을 위한 공연을 펼치던 중 그룹 멤버 임유경씨가 93년 먼저 탈북한 이모 황은숙씨 얼굴을 알아보면서 13년만에 인척간의 극적인 상봉이 이뤄져 또 한번 화제에 올랐던 새터민 출신 5인조 그룹 ‘달래음악단’.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났지만 새로운 정착지에서 유명인사가 될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세계를 향해 송신한 이 그룹의 활동 24시를 들어보고자 소속사 오렌지 엔터프라이즈의 김용철 매니저를 지면으로 만나 보았다



그룹 결성과 정식데뷔는 언제 어떤 경로로 했는지?

달래음악단은 올 7월 1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정식데뷔는 지난 8월 8일 KM '쇼뮤직뱅크' -제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전야제에서 이뤄졌습니다.

소속사에서 탈북자 출신 여성그룹 결성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 단초는?

영화 '간 큰 가족'을 보면서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를 다 접해본 탈북자들로 음악단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를 잘 접목시킨다면 아주 훌륭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할거라고 판단하고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예술 활동을 하고 온 여성들로 달래음악단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멤버구성을 하는 과정이나 오디션과정에서 재미난 일화나 우여곡절이 있었다면?

달래음악단은 결성 시 하는 일반적인 공개오디션이 아닌 직접 한 명 한 명 발로 찾아다니면서 선발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새터민들이 1만 명이 채 안되어 현실적으로도 공개오디션은 볼 수 없었지요.(웃음) 그러다보니 소속사 입장에선 고를 수 있는 선택폭은 좁고, 오디션이란 문화를 한번도 접해보지 않았고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던 터라 대부분 '이거 사기가 아닌가?' 해서 잘 안 만나주는 것도 곤혹이었지만, 어렵게 어렵게해서 실상 만나도 회사를 소개하며 이 곳 뮤지션 세계를 이해시키는 부분이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같습니다.

영화 '간 큰 가족'을 보면서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를 다 접해본 탈북자들로 밴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를 잘 접목시킨다면 아주 훌륭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할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속사인 '오렌지 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준다면?

한류 마케팅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생회사입니다. 일본 내 한류 음원의 모바일 서비스 사업과 영화·드라마·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사업을 비롯해 공연기획·드라마 제작·매니지먼트 등 종합 한류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획, 음반 및 DVD를 제작하는 일본 프리셔스 드림스(Precious Dreams)와 전략적 업무협정도 맺었으며, 그 첫번째 사업으로 후지TV에서 방송중인 '천국의 나무'의 이완의 첫 팬미팅을 지난 7월 10일과 12일 각각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했습니다. 대표적인 전속 연예인으로는 달래음악단과 비보이 진조팀 등이 있습니다.

데뷔싱글앨범 '멋쟁이'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의 특징과 장르는?

트로트 장르입니다. 그리고 특징이라면 남한 트로트의 편안함과 북한 신민요의 간드러짐이 접목된, 남한에서는 생소한 새로운 창법을 구사하는 트로트라고 할 수 있지요.

새터민들을 위한 공연활동 내용은?

추석을 맞이해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한국에 와서 처음 추석을 맞는 하나원에 있는 새터민 위문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 기획은 그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며 방문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달래음악단 단원 모두가 되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통일을 염원하거나 남북분단을 소재로 한 음반취입 계획이 있다면 조금만 공개해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군요. 양해 바랍니다.

통일 후 멋진 삶을 살았다고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서로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언니로 누나로 딸들로 살고 싶습니다

이 그룹이 구사하는 '북한의 신민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북한의 신민요는 북한의 발성(가성)을 이용해서 높은 고음으로 아주 간드러지게 부르는 민요입니다.

달래음악단에서 노래 외 남한의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면?

기존 한국 연예인처럼 가수면 노래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달래음악단은 종합예술이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디션을 볼 때 북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 위주와 노래·악기·춤 등 다재다능한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지금은 아코디언과 노래를 선보이지만 이후엔 다른 악기와 노래·무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격려 바랍니다.

작금에 일어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멤버들의 의견을 한두 가지만 요청한다면?

옛말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정말로 핵 없이 전쟁 없이 평화스러운 세상을 원합니다. 현재 북에 가족을 두고 왔기에 이 곳에 온 자기네들 때문에 하여 북의 가족들이 또 다른 나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들을 위해 생각하는 달래음악단 활동 계획은?

현재에 충실하며 열심히 활동해서 통일된 다음 멋진 삶을 살았다고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서로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언니로 누나로 딸들로 살고 싶습니다.

그룹 멤버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 가고 싶은 고향에 뛰어가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제2의 실향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허윤 통일교육소식지 편집위원 · (주)경향C&L 총괄팀장

5인 5색 프로필

멤버들 모두 북한에서 성악·연기·무용·아코디언 등을 전공한 음악재원들이라 이들의 개인 프로필을 살펴보면 리더 보컬 한옥정(28세·전 북한예술선전대 가수·평성·1998년 탈북), 무용 이윤경(22세·전 북한소년궁전 무용수·함북·2000년 탈북), 무용 허수향(22세·전 북한소년궁전 무용수·함북·2001년 탈북), 아코디언 임유경(19세·전 북한예술선전대 손풍금수·함북·2005년 탈북), 아코디언 강유은(19세·전 평양음악무용대학·평양·2005년 탈북)



표준어의 경계를 넘어 민족 공통어를 담는 최초의 사전

2003년 8월 하순, 나는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여 다섯 밤 여섯 날을 꼬박 고려호텔에서 묵었다. 고 문익환 목사의 유족인 문성근 선생과 ‘문익환 평전’을 집필 중이던 김형수 시인,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동행한 여정이었는데 연일 화제에 오른 것이 문익환 목사의 우리말 사랑이었다.

1989년 ‘방북’의 와중에도 어찌 말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남북 공동의 사전 편찬을 제안하여 기어이 김일성 주석의 약속까지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전율하곤 했었다.

영어나 불어처럼 세계어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우리말은 그러나 분단의 곡절을 속수무책으로 겪고 있었다. 정치나 경제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언어라는 담론은 ‘소귀에 경 읽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우리말이 빈사상태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통일이란 ‘모국어권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었다. 공동체의 결속력과 활력을 촉진하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주며, 지리멸렬한 우리말의 공동체를 서로 통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모국어의 건재가 필수적이었다.

통일은 ‘갈라지기 이전의 자리가 있는 과거의 어느 지점을 찾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문화적 고향’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때 나는 문익환 목사의 10주기를 앞두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중차대한 뜻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서울에서부터 미리 ‘남북공동 사전편찬 기획안’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고려호텔 커피숍에서 안내를 맡은 북의 보장성원들에게 힘주어 주장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을 만나 비로소 기획안을 꺼내 놓았다. 첫

대답은 시큰둥했지만 그 후로 나는 북측 성원들을 만날 때마다 기획안을 꺼내놓고 성심성의껏 설득에 열을 올렸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오늘에 이어져 ‘겨레말큰사전’에 닿는 것은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통일은 ‘갈라지기 이전의 자리가 있는 과거의 어느 지점을 찾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문화적 고향’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여기서 문익환의 통일운동은, 지상의 어떤 민족도 외세 때문에, 또 한 지상의 어떤 민중도 위정자들 때문에 ‘존재의 온전성’, ‘세계의 온전성’을 잃고 살 수는 없다는 점을 최종 전략으로 삼았다. 까닭에 문익환 목사가 ‘자신의 히브리’로 여기고자 했던 공동체는 ‘제도공동체’가 아닌 ‘문화공동체’였으며, 더 정확히는 ‘정치공동체’, ‘영토공동체’, ‘경제공동체’가 아닌 ‘언어공동체’였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라는 준열한 외침이 가장 적절하게 부응하는 자리는 ‘언어공동체’인 것이다.(김형수, ‘겨레말 학술대회’, 자료집 발제문 중에서)

언어란 인간에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며 현재를 살게 해주는 다리와 같다. 재래시장의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말의 향연에 빠져 있으면 뛰어난 음악성·정교한 표현법·탁월한 의사소통능력·삶에 대한 촌철살인의 통찰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득하게 잃어버리고 있던 세계를 되찾는 경험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다. 평양이나 개성의 거리에 나붙은 간판을 보고 있자면, 이미 사라져 간 날의 햇살들처럼 젊은 날에 잃어버린 단 한 번의 숙명적인 사랑처럼 언젠가 경험하고 다시는 맛보지 못했던 것을 만나는 아픔에 젖어들게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향수 때문에 나는 아팠었다.

북쪽 언어는 무척 낯설었다. 제3의 언어로 대화를 했으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했기에 보다 정확했을 사실들이 통역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경과

▶ 1989년

문익환 목사 평양방문 시 김일성 주석을 만나 ‘통일국어대사전’을 남북 공동으로 편찬하자고 제안, 이에 김일성 주석 동의

▶ 2003년 8월

문성근(당시 통일맞이 이사)의 평양방문 시 안경호(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기국장, 현 6·15공동위원회 북측준비위원장)에게 사전 편찬문제를 제기

▶ 2004년 1월

문익환 목사 10주기 추모 행사에 북에서 대표단을 보내왔을 때, 박용길 장로 북측에 ‘통일국어대사전’ 편찬 요청

▶ 2004년 4월

중국 연길에서 남의 통일맞이와 북의 민족화해협의회가 통일토론회를 할 때, 사전 편찬에 관한 의향서 체결. 이때 사전 명칭을 ‘겨레말큰사전’으로 결정

▶ 2004년 12월 11일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회 구성.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상임위원장에 고은(시인·통일맞이 이사), 남측 공동위원장에 홍윤표(연세대 교수, 집행위원장에 정도상(소설가·통일맞이 집행위원장) 위촉 및 편찬위원 위촉(김재용·이상규·이희자·이태영·오봉옥·조남호·조재수·홍종선)

▶ 2004년 12월 13일

금강산에서 편찬위원회 실무 접촉을 갖고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체결

▶ 2005년 2월 19일

21일에 금강산에서 결성식 및 1차 정기회의 개최

▶ 2005년 3월 15일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에 한용운 위촉

▶ 2005년 7월 9일~12일

평양에서 2차 정기회의 개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합의

▶ 2005년 8월 14일~16일

서울에서 3차 정기회의 개최

▶ 2005년 9월

제16차 남북 장관급 회담(평양)에서 제5항 ‘남과 북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밀어주기로 하였다’라는 내 용으로 합의

▶ 2005년 11월 24일~26일

개성에서 4차 정기회의 개최. ‘겨레말큰사전’ 세부작업요강 합의(단일 어문 규범 작성 요강·올림말 선정 작업 요강·어휘 조사 작업 요강)

▶ 2006년 3월 17일~21일

중국(북경)에서 5차 정기회의 개최. 새말 선정 방식, 어문규범 세부 사항 논의(자모 배열순서와 이름/사이시옷/띄어쓰기/문법 형태의 표기)가 이루어졌으며, 올림말 선정 방법 합의

▶ 2006년 5월 27일~30일

금강산에서 6차 정기회의 개최. ‘ㄱ’ 부분 올림말 선별, 새 어휘 조사 양식에 대한 합의 및 남과 북이 새로 발굴한 어휘 500항목 교환

▶ 2006년 9월 20일~23일

평양에서 7차 정기회의 개최. 올림말 선별 결과물과 선별 방식에 대한 논의. 새 어휘 선별 방법 및 어휘에 대한 검토, 두음법칙 표기 및 외래어표기에 대한 의견 교환

▶ 2006년 11월 27일~12월 1일

중국(북경)에서 8차 정기회의 개최. ‘ㄹ, ㅁ, ㅂ’ 부분 올림말 선별 논의

없이 만나는 남북의 입말들은 서로 각자의 귀를 통해 아주 엉뚱하게 재생산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기도 했었다. 그리하여 오해가 심화되고 대화가 어색해지게 마련이었다. 소통 가능한 언어가 때로는 불통의 언어로 연결될 때, 분단체제의 거대한 벽이 새삼 실감되기도 했었다.

남북 교류에서 마찰되는 ‘분단 충돌’의 핵심이 ‘언어 문제’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요즘엔 서로 양보해서 문건을 작성한 탓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어떤 문제를 합의하고 문서화할 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났다. 북에서 작성해온 문건에는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혹은 “미제에 의한 분열 책동...” 따위의 표현이 들어 있었고 우리 측에서는 즉각 만년필을 빼들어 뭉텅이로 삭제에 나섰다. 그 바람에 합의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냉랭한 얼굴로 헤어지기 일쑤였다.

남과 북이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어떤 예술단체 간의 교류에서는 남북의 동질감이 확인된 순간 누군가가 너무 기쁜 나머지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쳐버렸다. 행사가 한순간에 파산되었음은 물론이다. 상해임시정부 시절에 김구가 높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서 검양의 의미로 사용했던 ‘주석’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북측에 대한 굴욕’이라 하여 일격을 맞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남북의 언어가 달라서 통역을 했으면 싶을 때조차 있다. ‘언어 살해’와 ‘언어 자살’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김형수, ‘겨레말 학술대회’, 자료집 발제문 중에서)

남북의 입말들은 서로 각자의 귀를 통해 아주 엉뚱하게 재생산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기도 했었다. 소통 가능한 언어가 때로는 불통의 언어로 연결될 때, 분단체제의 거대한 벽이 새삼 실감되기도 했었다

모든 영혼은 모국어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을 구가하게 마련이다. 민족문화는 모국어라는 울타리를 갖게 마련인데 우리는 그 울타리 안의 마당을 60년 가까이 절반만 사용해 왔다.


이제부터 그 절반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앞장서서 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북의 편찬위원회는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소속의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공동편찬회의를 하게 되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는 당연히 뒷전이고 민족어의 마당에서 학술적인 모임으로 회의가 진행하게 되어 있다. 작년 4차 회의에 참가했던 중앙일보 기자는 남북의 학자들이 너무도 쉽게 학술적인 문제에 합의하자 서로 짜고하는 것이 아니냐고 집요하게 파고 든 적이 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다.

남북의 언어학자들은 겨레말큰사전을 만들기 위해 벌써 일곱 번의 회의를 했고, 이미 ‘ㄱ’ 부분의 올림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본 셈이다. 물론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없을 수는 없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8차 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어가는 ‘ㄴ’ 부분부터는 비교적 쉽게 합의해 나갈 것 같다.

아울러 ‘겨레말큰사전’은 분단의 경계를 넘어 통일로 가며, 표준어의 경계를 넘어 민족 공통어의 풍성함을 담은 최초의 사전을 향하여 순항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경계를 넘는다’에 있다. 분단체제로 인해 금기시된 모든 경계를 초월하진 않고서는 문화적 통일운동은 불가능하고, 근대의 표준으로 확정된 사무적인 경계를 넘지 않고서는 누천년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기록된 온갖 사투리를 비롯한 지역어의 어휘를 비표준어의 족쇄에서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우리는 남의 세계화와 북의 주체화가 빛는 이념적 체제별 가치지향성의 차이에서 오는 언어의 재앙을 실감하고 있다. 북의 언어에는 성찰적 요소가 결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자주 벽에 가로막힌다. 송두율 교수는 언어의 단절이 지성의 단절이 되어 더 이상 동일 차원의 지성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실을 들어, 그 일을 통일운동의 제1차적 과제로 삼았다. 실제로 남북의 지식인들이 토론을 벌일 때 사용하는 우리말의 언술체계와 전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 앞에서 우리는 아득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정치·경제·문화·사회·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접촉과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북의 핵심협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위기에 빠트리기도 말았다. 그 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내면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북측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이다. 핵심협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충돌 앞에 지난 6년의 시간이 참으로 허망하게 느껴진다. 심지어 그 충돌 때문에 ‘겨레말큰사전’이 난바다 위에 떠 있다.

이 배가 순항할지 어떨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한 지혜를 발휘하여 민족 구성원들이 사용하던 모든 언어를 이 배에 태워야 한다. 우리의 속담이 가르치듯이 “한 배를 탄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문익환 목사가 남긴 이 망각된 유산이 통일운동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기착지가 될 것임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정도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이사
통일이란 통이^{***}의 과정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미래의 문화적 고향.
‘통이’란 서로 다른 것들이 소통하는 문화적 과정으로, 통이가 전제되지 않는 통일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폭력 평화의 길 위에 저 멀고 먼 고구려적 고향이 놓여 있는 것이며 그것을 본인은 통일이라 부른다고



끊임없이 북을 향해
국경을 넘는 이들...



1991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

굿네이버스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코자 1991년 3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1996년 국내 최초로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비영리단체. 국내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9개 쉼터, 해외에서는 방글라데시 케냐 등 18개국과 북한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굿네이버스가 북과 함께 대북사업을 진행해 온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의 세월동안 142차에 걸쳐 1,611명의 사람들이 북을 방문하고 북의 사람들과 일을 해오면서 북의 변화를 누구보다 많이 지켜볼 수 있었다. 북에 가는 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은 분단의 현실에서 한 달에도 두세 번 북에 출장가는 우리를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이유로 북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북은 어떠한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만나는 사람들로 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빵 공급으로 대북사업 시작

굿네이버스는 1995년도부터 신의주에서 빵을 만들어 매일 신의주 인민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북한과 접촉을 갖기 시작했



다. 이후 1998년에 젖소 200마리를 지원한 이후 지금까지 젖소 510마리를 지원하였다. 지원한 5백여 마리의 젖소가 지금은 새끼를 낳아 2005년 12월 현재 936마리로 늘어 목장에서 관리되고 있고, 목장에서 생산된 연간 1,122톤의 우유는 인근 어린이 9,080여 명 및 노인들에게 급식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축산목장은 남포시 대안구역 대안젖소목장, 남포시 용강군 용강젖소목장, 평양시 중화군 교잡소 젖소목장,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 협동농장 등 젖소목장과 서포닭목장·삼석닭목장·용성닭목장 등 일곱 군데에 달한다.

1998년도부터는 젖소를 지원, 우유급식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반복되는 단순지원을 벗어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우유는 단순히 생산만 지원할 수 없는 식품이다. 우유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젖소와 함께 이 젖소들이 먹을 사료를 지원했으며, 살균·멸균 처리 등 가공 생산설비시설 역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과 젖소를 사육 관리하는 북 주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구빈리 협동농장은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자력갱생의 표본으로 알려지는 성공 사례가 되고 있으며, 평양시내 외곽으로도 지역개발사업(강남군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지원을 벗어난 노력의 결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젖소와 닭 등 가축의 먹이를 감당하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에 남포시 진도동에 연간 5만 톤 분량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3,000평 부지의 사료공장을 2005년 11월에 착공, 올 6월에 준공하였는데 144명의 남측 대표단과 50여명의 북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준공식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현재 이 사료공장과 연계하여 생산시스템이 돌아 갈 수 있는 콩기름 공장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방대한 공장의 주 원료를 지원하는 일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

굿네이버스에서는 단순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 의료분야에서의 제약공장사업은 그와 같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제약사업으로 정성제약연구소 내 병 주사제(항생제)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이 공장은 지난 2005년 6월에 준공되어, 연간 1천 5백만 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항생제는 기본적인 상처로 끓아 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공급이 필요한 약품이다. 그러나 병 주사제의 경우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또 하나의 제약공장으로 연간 1억개를 생산할 수 있는 캡슐 항생제 공장(대동강제약공장)을 금년 11월에 정성제약공장 부근에 준공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평양시 제2인민병원의 전 체를 리모델링하고 침대 등 내부 기자재·초음파 진단기 등 의료설비와 매년 4만~5만 달러의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의약품의 경우 미국 굿네이버스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3백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육아원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북한 전역에 있는 14개의 육아원(고아원) 중 총 9곳을 지원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남한의 경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일반

학교를 다니지만, 북한은 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게 특징이다.

북한 일반 아이들의 경우 0~4세의 유아들은 탁아소를 가고, 5~6세는 유치원, 7~10세 아이들은 소학교에 간다. 이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 고아들 중에 0~4세 유아들은 육아원, 5~6세 아이들은 애육원, 7~10세 아이들은 초등학교원, 11~16세 아이들은 중등학교원 등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원래 전쟁고아 때문에 만들어진 기관이 육아원인데, 현재 구성은 15% 정도가 고아이고, 나머지는 세 쌍둥이라든가 부모들이 아파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형편으로 아이를 육아원 맡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시설에 우리 단체가 영양식·분유·밀가루·식용유·필수 비타민제·담요·기저귀·옷과 같은 생필품을 지원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 2년 동안 남포육아원과 평양육아원 등 육아원 2곳을 신축·개보수 하였다.

교육지원사업으로는 북한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 전체의 부족한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5,000톤의 종이 중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00톤가량을 지원하였는 바, 이를 통해 1,500만 권의 교재가 제작되었고 120만 명의 학생들이 새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남과 북을 ‘평화와 화합’으로 잇는 사업

남과 북을 왕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간의 오랜 분단과 갈등으로 생겨난 남과 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족화해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 단체에서는 특히, 우리민족의 통일을 이끌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교육과 참여방법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교육으

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의 청소년 생활과 문화에 대한 소개와 이해, 통일의 필요성에 등 2개의 장으로 구성된 통일교육교재 ‘하나되는 평화세상’을 발간하였고, 또한 청소년 홈페이지 F5(<http://www.f5.of.kr>)와 동영상 제작, 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굿네이버스 전국 지부에서 교재신청 및 교육 수강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모색

굿네이버스가 북에 자력갱생의 개발시스템을 도입시키고, 취약계층과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등의 일들을 끊임없이 기획·추진하고 있는 것은 10년 동안 대북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북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따라 지원방법도 다각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남과 북이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사료공장·콩기름공장·정성제약공장·대동강제약공장 등 민간단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부와 힘을 합쳐 일러가고 있으나 이 사업들이 북한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 모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숙제이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굿네이버스는 한달에도 2~3회씩 북을 향해 국경을 넘고 있다. 🌐



김광희 대북협력부 협력2팀 대리
전쟁과 분단의 아픔 이 아닌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그녀는 오늘도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의 우리를 생각한다

제작능력은 뛰어나지만 작품수준은 낙후

북한 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과 남북협력 전망

북한은 1956년에 조선국립영화촬영소 내에 만화영화연구원을 설치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첫 관심을 보였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목한 것이다. 이는 남한이 1960년에 들어서야 상업광고로 애니메이션의 첫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른 출발이다. 1957년에는 조선국립영화촬영소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기록영화촬영소로 분리하면서 북한은 예술영화촬영소 내에 아동영화촬영소를 설치했다. 이 아동영화촬영소가 오늘날 북한 유일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4·26아동영화촬영소’이다.

어린이 사상교양 수단으로 육성

평양 대동강변에 자리한 4·26아동영화촬영소는 산하에 13개 창작단을 두고 있으며 모두 1,2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 중 2개 창작단은 국내물을 전담하고, 10곳은 해외 하청일을, 나머지 1곳은 컴퓨터미술을 담당하는 ‘컴퓨터3D창작단’이다. 컴퓨터3D창작단은 1990년대 말에 생긴 컴퓨터 창작단을 발전시킨 조직으로 2002년 하반기에 설치되었다.

이 촬영소는 지금까지 TV시리즈물 ‘소년장수’를 비롯하여 ‘영리한 너구리’, 장편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등 500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다. 또 1985년부터는 해외 작품제작 수주에도 눈길을 돌려 유럽 국가들의 작품을 제작해오고 있다.

최근 이 촬영소는 가중되는 북한 내부의 경제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이 촬영소는 연간 약 500만 달러의 수출목표액을 감당하지 못해 애니메이터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한다. 이를 반증하듯 애니메이터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거나 중국회사의 스튜디오에 나와서 일감을 찾기도 한다.

북한 애니메이션은 외부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 언론들은 자주 “4·26아동영화촬영소가 수많은 외국 작품들을



평양시 중구역의 대동강변에 자리한 4·26아동영화촬영소의 모습(뒤의 흰 건물)

주문제작 받아 외국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남한 언론들도 이를 받아서 “북한은 외국 영화사의 제작주문을 받을 정도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으로 보도해 왔다.

그러나 필자가 북한의 애니메이터들과 함께 작업한 결과로는 이러한 호평은 아직 성급하다. 폐쇄사회의 특성상 견문이 적기 때문인지, 보지 못한 사물이나 현상을 그려야 하는 데에서 큰 제약점이 발견된다. 단적인 예를 들면 광고간판이 즐비한 대도시의 거리 풍경을 이들은 쉽게 묘사할 수 없다. 또 연출이 구태의연하여 시대감각에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등장인물들의 동작이나 배경음악이 전체적으로 너무 느리다. 북한이 자랑하는 ‘소년장수’나 ‘영리한 너구리’의 최신작들도 남한의 작품수준에 비하면 20년, 많게는 30년 정도 뒤떨어지는 느낌이다. 다만 작화능력은 뛰어나다. 미술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애니메이터가 되기 때문에 소묘력 등 기본이 잘 닦여있다.

2000년이후 남북한 몇 개의 합작품 제작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몇 개의 합작품을 만들어냈다. 하나로텔레콤은 2001년에 3D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당가’를, 2002년 이후엔 역시 3D애니메이션 ‘뽀롱 뽀롱 뽀로로’를 공동제작 했다. 코아필름서울은 2001년부터 3, 4년에 걸쳐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왕후심청’을, 민족네트워크는 2005년에 단편 애니메이션 ‘새’를 제작했다.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이러한 공동제작은 제작사들의 적잖은 인내와 희생이 따른 결과물이었다. 하나로텔레콤은 전편을 다 북한측과 작업하지 못했고, 코아필름서울은 미국의 코아필름을 통한 우회적인 협력방식을 택했다. 민족네트워크 역시 제작 진행 중 애니메이터들이 철수하는 곤욕을 치렀다. 모두 정상적인 협력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정치적 통제가 협력사업에 고스란히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특정 작품 중심의 공동제작은 일시적인 협력사업에 불과해 교류 효과를 더 크게 신장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해당 작품이 제작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되어 남북 양측 제작자간의 교류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또 다른 작품을 제작하려면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양측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적잖은 인내·희생 요구가 공동제작의 현실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어느 협력사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상시적인 ‘공동제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애니메이션 남북협력의 관건이다. 공동제작 시스템은 특정 작품 단위의 제작이 아니라 어느 작품이든 관계없이 늘 처리 가능한 공장형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룩될 수 있다. 이 스튜디오에서 한국이 해외 작품을 하청 받아 처리해온 것처럼 북한이 한국에서 일감을 하청 받아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남한의 애니메이션 업계는 고임금 구조가 가속화되어 노동력 의존이 심한 메인 프로덕션 일감을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저임금가에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발주자가 아예 남한 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국 등지로 일감을 건네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공동제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는 현상이다.

공동제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족네트워크는 2004년 평양정보센터 내에 ‘만화영화창작단’이라는 소규모 스튜디오를 설치한 적이 있다. 그러나 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일감과 결과물의 너무 긴 전달 경로 때문에 제작기간이 턱 없이 늘어나는 단점을 견뎌내지 못하고 운영을 중지하고 말았다.



북한의 애니메이션
‘영리한 너구리’의 한 장면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이 그린
‘남자 거북’의 원화. 물결이 튀는
모습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 공동제작’ 구축 적지는 개성

필자는 남북 공동제작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개성공단이 그 적지라고 생각한다. 남북의 사업적 장점을 잘 살린 환경 조성은 물론 지리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북한의 저임금 고급인력을 활용하면 남한 업체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 뻔하다. 북한 인건비는 중국 인건비보다 저렴하다. 또 애니메이션 작업은 긴박한 제작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고,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작자들간의 빈번한 접촉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애니메이터들의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비교적 해결 가능하다. 오히려 외국이나 남한의 지방도시보다 여건이 좋을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에서의 합작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북한 측에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가능하다는 대답을 그들로부터 들은 바도 있다.

남북의 애니메이터들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머지않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정 민족네트워크 대표이사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예술 장르. 앞으로 열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이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업계가 남겨줄 유산은 무엇인가를 놓고 늘 현장에서 고민한다고



“흠어진 문화재를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

‘2006 남북문화재도서전’ 이 남긴 성과와 과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란 말을 한다. 지금과는 형편이 다른 까마득한 옛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우리 민족이 산중호걸로서의 아주 건강한 호랑이였을 때가 지금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되어 버렸다. 60여년의 세월동안 허리 디스크에 시달린 탓에 이제는 자신의 몸이 원래 얼마나 건강했었는 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호랑이의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남북은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들을 보여 왔다.

문화적 이질감 극복 위해선 우리 문화를 우선 되짚어 봐야

현재 남북분단 극복의 장애요인들은 정치적 문제나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문화적인 이질감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라 할 것이다.

소백산맥 기준으로 갈린 영남과 호남이 오랫동안 문화적인 차이

가 커졌고, 여기에 정치적 갈등이 겹쳐지면서 매우 소원한 사이가 되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단이 된 지 반 백년이 넘는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감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의 많은 부분들이 서로 다르며 유행하는 대중예술 또한 큰 간극을 보이고 있으니 그 문화적 이질감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현재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아닌 분단전인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모습이었고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였기에,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었기에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

현재의 문화적 이질감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같은 역사를 가진 같은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진왜란 전승기념 ‘북관대첩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진행된 일례의 행사들 역시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되찾고 남북문화교류사업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

다. 거기에 우리의 문화를 옹골게 지켜내고 이어받아온 우리의 무형 문화재를 통한 교류사업이 앞으로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주최로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개최되었던 ‘남북문화재도서전’ 역시 바로 이러한 우리 문화의 60년을 되찾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재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잃어버린 한반도의 60년 문화를 되찾고자 남북의 문화재를 순례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비록 남북간 정식교류행사로 개최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지만, 무엇보다 책을 통해 남과 북이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우리 문화의 60년을 되찾는 사업 일환

그동안 서울국제도서전 등 크고 작은 도서전들을 통하여 북한의 도서들이 소개되긴 하였으나, 남과 북의 문화재를 주제로 한 도서전은 그 전례가 없었다. 남북문화재도서전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 하겠다. 다만, 도서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북한의 활자체나 종이와 우리가 보던 것들과 비교하여 낫설고 혹은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만을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었다.

남과 북의 인쇄술이나 제지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문화유산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시각들을 바라보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특히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문화유산 중 조선왕조실록은 영인본과 국역, 그리고 북한에서 국역한 세 가지가 함께 전시되어 각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우리가 국역한 조선왕조실록과 북한에서 국역한 조선왕조실록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북한에 산재해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들의 모습들을 책을 통해 다양하게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중국에선 고구려가 자신의 역사라고 하고, 일본에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 통일을 위한 장애물도, 그리고 이웃 나라의 억지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깨닫고 있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징검다리이자, 교과서가 바로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이를 통한 교육의 활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이자, 국어 지리 과학 음악 미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배우는 교과서에 우리의



문화에 대해 나오지 않는 과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찾기

남과 북이 한 민족임을 이어주는 끈은 언어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 생각된다. 반 백년이 넘는 세월로 언어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간혹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시각차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문화유산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남과 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이어주는 끈이 될 것이다. 그 끈을 튼튼히 이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여기서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이라 칭하는 것은 문화유산 자체가 교육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산이 문화유산인 것이므로 그것을 통한 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며, 통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



이치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홍보정보화팀
 ‘統一’이란 말 그대로 하나로 모으는 의미. 물리적 통일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실천이 선행되어야 우리 손에 잡혀지는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세계가 인정한 ‘한민족’ 고대문화 투영

‘인류의 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의 의미



지난 2006년 9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연합뉴스, 일본의 교도통신, 한일전통문화교류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인류의 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이 바로 그것이다. 2004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벽화고분 16기 가운데 안악3호분·덕흥리벽화분·쌍영총·호남리사신총·강서대묘·강서중묘 등 6기의 고분벽화 사진 150여 점이 주된 전시대상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무산에 충격

2003년 여름, 10여 년에 걸친 준비기간 끝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된 북녘의 고구려 유적들은 관련 회의에서 중국측 전문가들이 제기한 몇 가지 석연하지 못한 이유가 받아들여져 확정이 보류되었다. 유적의 소재지를 떠나 우리 역사와 문화의 귀중한 자취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던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좌절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은 크게 실망했고, 그 과정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이미 2003년 봄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이 국내 민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던 상태에서 북녘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중국이 방해한 까닭이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북녘과는 사회주의 동맹국으로 우의를 과시하던 중국도 민족·영토문제와 얽힐 수밖에 없는 문화적 입장·역사적 해석에서는 자국 중심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2003년 가을부터 한국은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여러 측면에서 북녘과 함께 하고자 애썼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중단하거나 내용 수정을 기하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국제적 고립상태의 북녘은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의 유일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 경색을 우려하며 ‘고구려’ 문제에 적극 대응할 의사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런 까닭에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도,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건 조성도 국제법

상으로는 당사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등재 실현’은 남북 공조가 낳은 귀중한 열매

필자는 2004년 6월 고구려 특집을 기획한 한국방송공사 취재팀과 함께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진파리1호분·수산리벽화분·강서대묘·강서중묘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대상 고구려 벽화고분 내부를 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현장에 동행했던 북녘의 연구자들은 북녘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으니 역사문제·유적문제에 대해서는 남측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기대한다는 점, 그런 사실에 대해 내심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다행히 2004년 7월, 비록 중국의 의도대로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과 동시 등재지만, 북녘의 고구려 벽화고분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 어쩌면 길으로 드러나지 않는 남북의 공조가 귀중한 열매 하나를 맺은 셈이었다.

1990년대부터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사적 위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있던 일본고구려학회 제안, 한일전통문화교류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일본 교도통신은 2004년 9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북녘 고구려 유적의 취재에 들어갔다. 북녘은 안악3호분을 비롯한 6기의 벽화고분 내부를 공개하면서 일본 취재팀의 사진촬영을 허락하였고, 사진기자들은 1,500년 전 고구려인이 그린 고구려인의 삶과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교도통신은 귀중한 세계문화유산의 현황을 내외에 알리고자 이로부터 1년 뒤인 2005년 9월부터 특별사진전에 들어가 현재까지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전시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가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인류의 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에 소개된 벽화사진들은 2004년 9월, 교도통신 취재팀이 촬영한 것들이다. 비록 한국의 사진작가들에 의해 촬영된 것은 아니나 고구려 고분벽화가 지니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 오히려 고구려문화의 국제성과 보편성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도 든다. 일본의 예술가들에게 고구려 고분벽화는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세계미술사상 불후의 명작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고구려 역사와 문화가 담긴 귀중한 유산

잘 알려진 것처럼 700여 년 이상 국가체제를 유지했던 고구려는 중국의 통일왕조인 수·당과의 오랜 전쟁 끝에 멸망하였다. 668년 9

월 평양성이 신라·당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고구려의 유력자들은 당과 신라로 끌려갔고, 주민들은 흩어졌으며 지상의 건축물들은 불태워지고 버려졌다. 30년 뒤, 고구려의 뒤를 잇는 발해가 건국되었지만 평양일대는 국경지대의 버려진 옛 도읍처럼 여겨졌고, 집안 역시 변방도시로 남아 있었다.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지상의 자취들은 점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고분벽화는 이처럼 지상의 것들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잊혀질 뻔한 고구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후대의 기록들과 달리 벽화고분 안에는 고구려가 ‘해와 달의 아들이 세운 나라’, ‘천하의 중심’으로 존재하던 당시에 그려진 그림·글씨가 남아 있는 까닭이다. 고구려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믿고 죽은 뒤에는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했는지 고분벽화가 저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생생히 말해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집안·평양 등지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고분은 107기에 이르지만 벽화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30~40기에 불과하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벽화의 상당 부분이 지워지거나 없어진 까닭이다. 지난 특별전에서 소개된 고분벽화들은 알려진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사례에 속하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기도 하다.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분의 벽화는 생활풍속을 주제로 하는 초기 고분벽화를 대표할 뿐 아니라, 무덤주인을 알게 하는 묘지명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무덤 안에 세워진 2개의 8각 돌기둥으로 유명한 쌍영총은 사신(청룡 백호 주작 현무)이 등장하여 벽화 안에서의 비중을 높여가는 중기 고분벽화이다. 1916년의 조사 이후, 90여 년 만에 벽화 보존상태가 외부에 자세히 공개된 특별한 사례에 속한다. 호남리사신총의 벽화도 거의 90년 만에 벽화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경우이다. 강서대묘는 벽화의 사신도, 특히 현무도가 6~7세기 세계미술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으로 평가되는데, 이번 전시에서 그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강서중묘 역시 벽화 중 청룡·백호의 묘사에 깃들여진 고구려 화가의 예술 혼으로 유명한 고분이다.👁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통일은 동아시아의 평등한 국제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을 위해선 남과 북이 우선 상대에 대한 '의구심'을 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



즐거운 ‘평화’ 놀이터로 자리매김

‘2006 세계평화축전’ 결산

2006 세계평화축전이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지난 9월 21일부터 나흘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평화’, 그래서 ‘하나가 되는 평화’란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특히 세계평화의 날인 9월 21일에 맞춰 개막을 한 이 행사는 영국에 본부를 둔 Peace One Day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전쟁 없는 하루’ Peace One Day에 처음으로 동참,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공연자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된 이번 행사의 주요 컨셉은 Peace One(평화의 기원을 모두 모아 한 마음으로...)와 White Peace(태양의 민족이며 백의민족인 ‘우리 민족의 평화’ 상징)였으며 축제가 되는 평화, 참여와 봉사의 기쁨으로 평화의 배움터이자 즐거운 놀이터로서 어우러지는 한 마당 축제 형태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예술공연 · DMZ체험 · 풍등 날리기 · 물위의 평화불꽃놀이 등을 비롯, 세계인과 하나 되는 학술/교육프로그램, 통일사진전 등의 전시 프로그램, 앙드레 김의 패션쇼와 라난 루리의 작품기공식, One-Korea 마라톤대회 등의 특별 이벤트가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되었다. 🌍

편집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띠’

시사만화가 루리의 ‘유나이팅 페인팅’

“나의 예술행위로 닫혀있는 북의 문을 열어주고 싶다.”

영국의 더 타임스,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 유명 신문과 뉴스위크, 라이프 등 서방세계의 주요 잡지에 그의 만평이 실리지 않은 데가 없는 세계적인 시사만화가 ‘라난 루리’ Ranan Raymond Lurie가 2006 세계평화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판문점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임진각공원에 그려낸 작품이 있다. (◀ 하단 그림)

임진각 종각을 중심으로 북한 · 러시아 · 중국, 그리고 일본을 향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폭 1m, 길이 100m가량의 푸른 색 물줄기 형상을 띠고 있는 이 작품명은 유나이팅 페인팅 [Uniting Painting].

설치 미술가이기도 한 그가 이 작품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유엔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로 기획, 뉴욕 유엔본부 건물에서 허드슨강까지 ‘평화의 띠’를 그린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평화의 메시지로 전 세계를 하나의 띠로 묶겠다는 그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줄기 중 중심줄기인 북쪽줄기가 DMZ를 통과해 북한 땅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의 고백



오인문 소설가

1961년 월간 '자유문학' 지 소설 당선으로 등단. 제22회 한국문학상 · 후광문학상 본상 · 예총 예술문화대상 문학부문 대상 등 수상. 중앙대학교 예술대 문예창작과 · 동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회장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출강 · 숭의여대 겸임교수 등 역임. 주요 저서로 창작집 '노기자의 죽음' 장편소설 '하늘에 걸린 얼굴' 외 다수

“모처럼 이렇게 나라 밖으로 나오고 했으니 나하고 술 한 잔 하겠니?”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가능하면 감추고 싶어 서였을까.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쉽게 구분이 안될 만큼 아버지의 말씨는 억양까지도 서울 표준말에 가까웠으나 긴장이 풀린 탓인지 이번엔 ‘하겠니?’ 하고 물었다. 준호는 이번 중국여행을 떠나오기 전 어머니가 몇 번씩이나 당부했던 말로부터 그 순간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잠시 머뭇거렸다.

“아무래도 너희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지셨다. 돈 버는 일과 집안 식구들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글썄...”

최근엔 수상쩍은 중국 여행이 잦아졌고, 외모에도 신경을 쓸 뿐 아니라 밤이면 창밖의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까 생각될 때는 이제 잔소리도 말고 그냥 너희 아버지 하고픈 대로 맘껏 즐기다가 이 세상 하직하라고 하고 싶지만 어디 감정이란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

어머니 자신이 아니라 너희들 앞일을 생각하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반세기 가까이 벌여 모은 재산이 거부^{거부} 소리도 들을 만큼 쌓인 터라 여자 문제로 인해 그것이 탄 곳으로 새어 나가는 것만은 그냥 못 본체 할 수 없다는 말을 전에도 지나가는 말투로 흘린 적이 있었다.

“아버진 우리 가족과 사업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시잖아요? 여자에게 한눈 팔 그런 재주는 아예 타고나지를 못하신 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 끊으세요.”

“국내에서 못된 짓을 하다가 꼬리를 밟힐 것 같으니까 외국에 사업을 확장합네 어쩔네 하면서 거기서 사랑 놀음을 벌리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장남인 내가 이번 중국 여행길엔 동행을 해라. 가서 눈 크게 뜨고 명탐정 노릇을 하란 말이다”

그것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라기보다 준호의 평소 믿음이기도 했다.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강제 징집되었다가 붙잡혀, 반공포로의 한 사람으로 남한에 돌려 살게 된 아버지다. 주위에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하나 없는 탓인지 실어증^{실어증} 환자처럼 가족들과도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 어찌다가 술이라도 몇 잔 마시고 들어온 날 역시 화제^{화제}가 딱 단순했다.

“남한에 뿌리내리며 살아오는 동안 내가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뭘 줄 아냐? 돈, 돈이 신^신이라는 거였다. 돈만 있으면 일가친척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못난 놈도 잘난 놈이 되고, 벼락출세도 할 수 있는 별난 세상이라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활 목표는 첫째도 돈, 둘째도 돈을 버는 것이었

다고 했다. 친구들을 사귄 때도 이 점을 늘 기준에 두었기 때문에 친구다운 친구 한 명 못 사귀고 외로운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일제시대에 너희 할아버진 일본 관리의 신임을 얻은 덕분에 함경도에서 제법 평평거리고 살았었다. 그래서 돈이 참 좋다는 걸 난 일찍부터 알았었지. 헌데 해방이 되고 인민군 정부가 들어서자 우린 반동분자 가족으로 몰려 일시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래 전쟁 포로로 붙잡혀 거제도에 수용돼 있을 때 남한땅에 남기를 희망했었지. 남한이 어떤 세상인지 몰랐으나 지주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남쪽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일편단심 돈만 벌려고 노력해온 덕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지 나는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부자로 성공을 했다.”

아버지의 말수가 늘어난 경우로는 유일하게 ‘돈’에 관한 화제였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축재과정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그 ‘부자의 비결’ 같은 걸 전수시켜 주고 싶어서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떡하여야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라고 하면 해줄 말이 있긴 하지. 돈이라는 건 말이다. 별기보다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니까 돈이 벌리면 일단 은행에다 맡겨서 푼돈도 개미 급뎌 쌓듯 저축을 하고, 그 액수가 좀 커지면 안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것을 땅에다 착실히 묻어두라는 거다. 땅에 묻어놓은 건 도깨비도 못 훔쳐 가져든. 돈이란 안 쓰면 불어나게 마련이고, 땅은 누가 새로 생산해낼 수도 없는 자산이라서 때가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물건이란 이치를 알면 따로 더 경제 공부 같은 것 안 해도 된다.”

그런 철학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이어서인지, 아니면 요즘과 달리 땅 투기가 허용됐던 시절을 운 좋게 만나서인지 준호가 어느 정도 철이 들어 계산해 보니 그 자신이 이제부터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아버지의 재산으로 대대손손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었다. 그 걸 알자 온몸에서 기운이 싹 빠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무얼 해야 하지? 돈을 안 벌어도 된다면 해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자 사명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굳어져 결혼 뒤에도 아버지가 맡겨준 일들을 형식적으로만 해나갔을 뿐 한번도 돈벌이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거부 집안의 장남이라 해도 해본 씬 씬에 비해 늘 지갑 속의 돈은 모자라기 마련이었다. 이럴 때마다 어머니가 비상금을 채워주며 사병^{사병} 혼련시키듯 은밀히 개인적 용무를 맡기기도 했다.

“남자가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뭘겠냐? 아주 큰 감투를 써보거나 도박 같은 데 빠지는 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

순서는….”

그의 눈치를 살살 살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여자 문제에 대해 탐색의 축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한번 그 방향으로 생각을 굳히자 어머니에겐 일종의 편집증^{obsession} 같은 게 생겨난 것도 같았다.

“국내에서 못된 짓을 하다가 꼬리를 밟힐 것 같으니까 외국에 사업을 확장합네 어쩔네 하면서 거기서 사랑 놀음을 벌리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장남인 내가 이번 중국 여행길엔 동행을 해라. 가서 눈 크게 뜨고 명탐정 노릇을 하란 말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의 주머니 속에 경비를 또 두둑이 넣어주었다. 어머니의 스파이로 고용되어 아버지의 여자관계를 조사한다? 그건 결코 명분도 서지 않는 일이라 몽고적거리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아버지가 스스로 마련해 주었다.

“중국쪽 사업도 익힐 겸 이번에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사업이라고 해봐야 뭐 복잡할 건 없고, 그냥 사람만 잘 사귀어두면 된다. 중국이 자유 시장 제도를 도입했다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라서 당 간부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다. 또 전통적으로 신용관계를 아주 중시하는 풍토라서 고위층과 신용관계를 얼마나 쌓아두느냐 하는 게 곧 사업의 수완으로 통하는 나라란다.”

일이 잘 풀리려니 호박이 넉줄째 굴러든다 싶어 선뜻 따라나서긴 했으나 왜 그 순간 주머니 속에 감춰진 비수의 끝 같은 걸 감지했을 때처럼 까담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 귀퉁이로 파고들었는지 준호는 알 수가 없었다.

“애비와 술 한 잔 하겠냐는데 뭘 그리 깊게 생각하는 게냐?”

아버지가 다시 채근했을 때에야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종고말고요. 예,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술값은 제가 낼 테니 제게도 좋은 곳 가르쳐 주세요.”

준호는 그렇게 서둘러 대답하고는 아버지의 뒤를 강아지처럼 따라갔다.

중국에 오면 아버지가 으레 들르는 단골집 같은 주점은 그곳 예벤의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의 요정을 흉내 낸 듯 아늑하고 조용한 룸도 몇 개 갖춰져 있고, 한복을 차려입은 예쁜 여종업원들이 시중도 들고 있었다. 이곳 특산이라는 도수 높은 화주를 두 병째 비운 뒤 아버지는 오랜만에 해후한 혈육이라도 대하듯 준호를 한 동안 응시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얘기해 보거라. 네 어머니가 네게 어떤 특명을 내렸냐?”

준호는 흠칫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나요?”

“물론이다.”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술에 취해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남자답게 질문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싶어 준호



는 호흡을 조절한 뒤 말했다.

“그럼 여쭙 보겠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 질문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곳에 어머니 추측대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여분이 있으십니까?”

“숨겨둔 여자 말이나? 하하하 너도 한 명 소개해주랴?”

“뭐라구요? 그렇다면 어머니 추측이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준호의 음조에는 어느 틈에 실망과 분노의 기색이 배어있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너도 생각하는 게냐?”

준호는 침묵을 지켰다. 내게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 또 사업을 하자면 바이어 접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아버지가 문밖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애들아, 내가 얘기했던 여자 손님 이리로 안내해라”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던 듯 곧 한복 차림의 여자 한 명이 들어왔다. 그러나 옷차림이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수수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이미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바로 이 분이…?”

“그렇다. 그렇게 결혼 한 달도 안돼 강제 징집으로 인민군에 끌려갔던 것인데, 내 불찰로 복讎 가족들은…”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로 굵은 눈물 줄기가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여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장본인?

그럴 것도 같았다. 이미 고희의 나이에 이른 아버지에게 이런 아줌마 스타일도 과분하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자는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은 채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우는지 영문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준호를 향해 아버지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작부터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더 늙기 전에 너한테 꼭 소개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는 꼭 돌봐 줘야 할 사람들이거든. 자, 인사를 나누거라.”

“예?”

준호의 눈앞에 그 순간 어머니의 성난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친 뒤 준호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했다.

“인사 받아라. 네 사촌누이다”

“예? 사촌누이라뇨?”

너무 의외의 얘기라 멍청하게 예, 예 반문만 하는 그를 무시하고, 아버지는 방문 밖을 향해 손짓을 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까무잡잡하고 주름투성이인 그 얼굴에서 살아있는 것은 두 눈뿐인 듯 유난히 검게 반짝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소. 어서 와 이리 앉아요.”

아버지는 조금 전까지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그녀에게 양보했다. 그녀는 겁먹은 듯한 시선으로 준호를 살핀 뒤 조신하게 앉았다. 저고리 소매 밖으로 나온 두 손이 갈퀴처럼 째마르고 거칠었다.

“아버지, 이 분들은 누구십니까?”

돈으로 거래하는 사랑의 대상은 아닌 듯하여 준호는 여인들을 번갈아보며 어눌하게 물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은 굳어버린 듯 열리지 않고 두 눈도 감겨있었다. 얼굴에 주름투성이의 여인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아버지, 이 분들은 도대체 누구시냐구요?”

준호가 몇 차례 더 되물어도 아버지의 감긴 눈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참만에야 입을 열어 아버지는 엉뚱한 말을 했다.

“오늘은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싶구나. 아니 술을 마시고 또 마시다가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 말에는 대답을 않고 아버지인 화주를 큰 잔에다 가득 부어 벌컥벌컥 마셔댔다. 그러다가 준호에게 버럭 화를 내었다.

“이놈아, 내가 알 수 있겠냐? 살아 있으면서도 가슴은 솟겅텅이처럼 타 죽어있는 사람들의 속을 말이다.”

갑자기 끼이끼이 소리를 내어 울기까지 하는 아버지 앞에서 준호는 자신이 이런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몰라 눈만 껌벅거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을 그친 아버지가 두 여인을 이윽히 바라본 뒤 말했다.

“준호야, 이 나라엔 입이 있어도 차마 말 못하고 병어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상상할 수 있겠냐? 내게도 진작 고백을 못했다만 나는 이북에서 총각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해방 후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손^손이라도 받아두자고 부모님이 그렇게 서두르셨지.”

“그럼 바로 이 분이…?”

“그렇다. 그렇게 결혼 한 달도 안돼 강제 징집으로 인민군에 끌려갔던 것인데, 내 불찰로 복讎 가족들은…”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로 굵은 눈물 줄기가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라 찢찢때는 준호를 향해 그 주름투성이의 여인이 얘기했다. 북쪽 세상을 거부한 반동분자의 가족이라 하여 북에 남아있던 아버지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 모두 탄광촌으로 쫓겨나 하나 둘 비참하게 죽어갔고, 그곳에서 자기는 아버지의 동생 딸인 이 중년 여자하고만 살아남아 여태까지 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다고.

“준호야, 내가 중국에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던 건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의 가족들 소식을이라도 듣기 위해서였다. 북한을 드나드는 중국 상인들을 통해 이 두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다행히 이곳으로 탈북시키고 여기 정착시킨 했다만 차라리 내 가족 소식을 모른 채 내가 죽어갔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본 적도 많았다. 나 때문에 것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내 가족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대체 뭐란 말이나? 내가 아무리 거부가 되어있든들 그까짓 돈이 대체 뭐란 말이나. 이래도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냐?”


아버지는 술에 취해 주먹으로 상을 쿵쿵 내리쳤다. 그 모습을 보면서 준호는 아버지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귀국 후 어머니에게는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

주요 통계로 본 2006년 하반기 남북관계

북 미사일 · 핵 실험 여파로 ‘주춤’

방북인원 · 물적 교역 모두 감소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결과 남북한 인적교류가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방북인원은 6월 11,395명에 비해 7,622명으로 33.1% 감소하였다가, 8·9월에는 8300여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핵실험이 실시된 10월에는 방북

인원이 6,878명으로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다. 물적 교역은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반입 · 반출 합계액이 11억 6천 9백만 달러로 2005년의 10억 5천 6백만 달러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월별 동향을 보면 10월 반입액은 5060만 7천 달러로 전월 5,699만 달러에 비해 12.6% 감소하였고, 반출액은 9월 2억 5597만 1천 달러에 비해 무려 746.7%가 감소한 3,023만 달러에 그쳤다. 

1. 인적 교류 현황

1) 2006년 월별 인적 교류 현황 (단위 :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누계
북한방문	5,699	7,096	8,837	9,495	9,251	11,395	7,622	8,341	8,390	6,878	83,004
남한방문	21	33	249	24	258	210	40	0	0	0	835
합계	5,720	7,129	9,086	9,519	9,509	11,605	7,662	8,341	8,390	6,978	83,839

2) 연도별 인적 교류 현황

북한방문 현황(금강산 방문객 제외) (단위 : 명)											
구분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1-10	누계
인원	2,405	3,317	5,599	7,208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83,004	236,234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98.11~12	'99	'00	'01	'02	'03	'04	'05	'06.1-10	누계	
인원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16,872	1,329,726	
남한방문 현황 (단위 : 명)											
년도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1-10	누계
인원	575	0	62	706	191	1,052	1,023	321	1,313	835	68,571

2. 물적 교역 현황

년도	반입			반출			합계 (단위 : 천 달러)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7,394	578	425,148	
'01	4,720	201	176,170	30,034	492	226,787	7,754	549	402,957	
'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8,796	572	641,730	
'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588	724,217	
'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12,893	634	697,040	
'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21,215	775	1,055,754	
'06.1~10	12,589	390	425,520	13,775	670	743,802	26,364	723	1,169,322	


* 대북지원, 경제협력사업(개성 · 금강산 · 기타), 사회문화협력 반출입 금액은 제외

올 10월 농협 금강산지점 개설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에 이어 두번째

농협은 지난 10월 3일에 관광객을 위한 달러환전 및 현지 기업인의 예금을 주 업무로 하는 금강산지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금강산 지점 개설을 위해 농협은 지난 5월 통일부에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농협 금강산지점은 온정각 인근 2층 건물로 신축되었으며, 1년

365일간 휴무 없이 운영된다. 영업인력은 모두 5명으로 이 중 3명은 농협중앙회에서 파견되었으며, 2명은 현지에서 조선족을 채용하였다. 농협 금강산지점은 지난 2004년 개설된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지역에 개설되는 국내은행 지점이다. 



• 지금 개성공단은...

개성공단 본 단지 첫 제품 출하 개성공단 본 단지 첫 제품이 9월 29일 출하되었다. 2005년 9월에 분양된 본 단지 5만평에 입주한 개성코튼클럽(주)은 9월 29일 약 2억원 상당의 남녀 내의 6개 품목 4만장을 반출하였다. 개성코튼클럽(주)의 정수선 법인은 “8월말부터 근로자들의 기술교육을 시작, 9월초부터는 시제품을 생산한 이후 바로 본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외 주요 인사들 잇단 방문

① 인천시 서구 중소기업인 140여 명이 개성공단을 방문(8월 29일) 하여 현지의 입지여건 및 투자환경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장을 직접 시찰하였다. 이어 8월 31일에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성남시 투자시찰단 90여 명이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와 성남시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성남시 중소기업인들의 호응이 높았다.



② Jens Hald Madsen 덴마크 외교위원장 등 국회의원 8명, 주한덴마크 대사 등 13명이 9월 15일 방문, 관리위원회의 브리핑을 받은 후 우리은행 · 경협사무소 및 시범단지 내 부천기업의 조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들은 북측 노동력의 공급 및 근로환경에 관심을 보였으며, 주한덴마크 대사는 “개성공단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물리적 환경은 세계 곳곳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때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개성공단 견본품 직거래 본격 시동

통일부는 6월 22일 현대아산에 대해 개성공업지구를 거쳐 남북 사이에 왕래되는 견본품 운송사업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다. 현대아산은 북측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와 올 5월에 견본품 운송사업을 위한 합의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남측지역↔경협사무소’ 구간을, 북측 민경련은 ‘북측지역↔경협사무소’를 각각 운송하게 된다. 기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던 견본품 송달체계가 이번 승인으로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출입절차 간소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북측 출입국사업부와 협의, ‘개성공단관계자’에 대하여 초청장을 폐지하는 등 일부 출입절차 간소화 조치를 지난 8월 31일부터 잠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초청장’ 방식(30여일 소요)에 비해 방문 준비기간이 7일로 크게 단축된다. ‘개성공단관계자’에는 관리위원회 및 지원기관 · 입주기업 · 기술자 및 바이어 · 건설관계자 · 사업지원단 등이 포함된다.

개성공단 자동차관리규정 제도로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 7월 25일 자동차의 등록과 기술검사 · 통행 및 제재 등에 관한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개성공단 내 상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남북을 왕래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8월 30일 적십자사 첫 구호물자 출항이후

수해복구 지원 ‘북핵’ 이후 잠정보류

오늘 7월 중순 남한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집중호우는 북한에도 지난 1995년과 1996년에 버금가는 수해를 입혔다. 특히 평안남도과 황해남·북도의 곡창지대가 물에 잠겨 곡물수확량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기아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북한의 피해상황이 알려지면서 북한 수재민 지원 여론과 함께 민간단체에서는 모금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민화협 등 민간단체는 대북수해복구지원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사일사태 이후 중단한 쌀·비료지원과는 별도로 순수 인도적인 측면에서 수해복구지원 참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8월 9일 북한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통해 수해복구 지원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정책협의회의 등을 거쳐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구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9일부터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적십자사 실무접촉을 갖고 북한에 국내산 쌀과 시멘트 각 10만 톤·철근 5천 톤·덤프트럭 100대·굴삭기 50대 등의 복구장비와 모포 8만장·긴급응급수호세트 1만 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원물품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실무접촉에서 “남측도 수해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8월 30일에 대한적십자사의 첫 구호물자(쌀 300톤과 모포 2만장, 긴급구호품 1만 세트 등)가 트레이드 포춘호에 실려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출항하는 등 10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던 북한 수해복구 지원물품 전달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이후 잠정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다.👁

‘거리모금’ 성원에 ‘하나’ 임을 확인한 8월

북녘 수해복구 지원 ‘겨레하나 범국민 캠페인’

지난 8월 초 전국이 수해복구로 비지땀을 흘릴 무렵이었다.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갑자기 북녘의 수해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6·15공동위북측위원회가 6·15공동위남측위원회에 보낸 서신에서 수해지원에 관한 언급을 통해 북측에도 수해복구가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2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 북측의 수해 복구지원이 긴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국민 모금운동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겨레 하나는 1차로 8월 8일부터 8월 31까지 대국민 거리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국 6개 지역본부, 4개 사업본부와 6개 회원 단체에서도 모금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캠페인 과정에는 겨레하나 연예인 홍보회원들이 직접 거리모금에 참여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기

도 하였다.

10명의 홍보회원 모두가 거리모금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였고, 8월 18일은 배우 권해효씨가, 8월 25일은 배우 안석환씨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거리모금 초기에는 무덤덤하던 시민들도 하루 이틀이 지나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금을 진행하자 시민 한 분은 몇 달을 모았던 돼지저금통을 즉석에서 털어 모금함에 넣어 주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대 서울 민주동문회의 경우 북녘 수해돕기를 위한 베품시장을 개설하여 116만원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겨레하나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와 회원단체의 1차 모금 총액은 약 2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거리모금 액수는 230만원이었다.

조원호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국장



북한주민들의 실질 의료서비스에 초점

지난 8월 낙랑섬김인민병원 착공식



지난 8월 17일 오후, 평양 락랑구역 통일거리에서 ‘낙랑섬김인민병원’의 착공식이 열렸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기아대책’)는 북한 동포들에게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남북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의료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8월 평양 주민진료를 위한 병원 건립사업 기초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처음엔 북측에서 신경외과 전문병원이나 휴양소 기능이 있는 대형 병원을 고집하고 시기적으로는 10월 ‘아리랑축전’으로 인해 한 해를 넘기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대책은 규모만 크고 주민들은 찾지 않는 병원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병원을 짓자고 북측 관계자들을 설득, 올 초 다시 세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평양의 락랑구역의 낙랑섬김인민병원 부지에서는 현재 터다지기(땅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병원은 대지 3,025평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건립되고 중환자실 12병상을 포함해 74병상이 들어서며 내년 10월 착공예정이다.(※ 우측 조감도 참조) 병원이 완공되면 락랑구역 주민 1만여 명이 치과·내과·일반외과·정형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최초 해외구호 NGO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8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해외구호 NGO로서 1994년부터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인해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식량(씨감자·밀가루·분유 등)·의류·의료장비·젓염소 등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형태의 지원사업을 수행해왔다. 2003년부터는 대북사업의 중점방향을 긴급구호에서 개발사업으로 전환, 2006년 현재 북한어린이를 위한 빵 공급사업과 시범농장 지원사업,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을 위한 수자원개발사업 및 평양낙랑섬김인민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원문의: 기아대책 02-544-9544(ext.216)



이번 병원 건립사업은 단순히 병원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수준을 넘어 남한의 의료진이 북한의 의료진과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도하는 사업이다. 비싼 장비만 들여가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병원은 짓지 않겠다는 의지로 기아대책은 아주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어 완공 이후 5년간 의료진의 정기적 파견으로 북한 주민의 치료를 위해 힘 쓸 것이다.

특히 이번 병원건립은 남한의 시공업체가 직접 현장에서 공사를 맡게 된다. 아직 완공까지는 거쳐야 할 난관이 많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지원 사업인 만큼 정치와 이념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산현영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KFPR} 사업추진부 대외협력팀 간사

북에 심는 나무, 그건 내 마음 ‘통일’ 한 그루

한살배기 ‘북녘에 나무보내기 운동본부’의 꿈

1997년, 거둬들인 대홍수로 재앙과 같은 기근이 북녘 땅에 밀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 모두가 너나할 것 없이 주머니를 털고 쌀독을 비운 적이 있었다. 고통을 겪는 북녘 동포들의 사연만큼이나 절절하고 기구한 사연이 남쪽에서도 만개했다. 전세방 보증금을 빼서 기탁한 신혼의 교사 부부, 막일하는 아버지가 간간히 쥐어준 용돈을 성금으로 낸 달동네 공부방 아이들, 첫 아이 돌 만지를 들고 성금창구에 줄을 잇던 어머니들...

그 후 10년이 흐른 2006년, 올 여름에도 북녘 땅은 ‘100년만의 대홍수’로 150여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거의 준전시 상태의 재난이 북녘을 강타한 것이다. 대북지원 및 교류사업을 펼치는 뜻있는 남쪽의 단체들이 즉시 팔을 걷어붙이고 성금모금과 구호활동에 나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들의 호응이나 열기는 10년 전에 비해 미약한 게 사실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틀린 분석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을 ‘미사일’로 돌리려는 우리의 대북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북녘 땅에 이름표를 걸어 나무를 심어 주신다니...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과 우리 식구 이름표를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그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북녘 땅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합니다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관계에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북녘동포 돕기운동’보다는 대북교류사업, 대북지원사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한 용어가 되어버렸다. 대북사업은 남에서나 북에서나 상당히 실력이 있는 단체들이 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규모가 커진 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졌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들도 보통사람들의 정성을 모으는 일보다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문턱을 넘는 일이 더 잦아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통일에 가까워져 있어야만 할 일이다. 그런데도 보통사람들은 여전히 통일에 별 관심이 없다고 들 한다. 해마다 남과 북이 대규모 행사를 열고 불멸의 스타 조용필이 평양에서 공연을 했는데도 별반 감동하지 않는 눈치이다. 큰 돈 가진 사람들의 대북사업 참여가 늘어난 반면 보통사람들이 북녘 동포들을 위해 지갑을 여는 일은 드물게 되었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온갖 즐거운 상상이 인다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다.

‘북녘에 나무보내기 운동본부’(이하 ‘북녘나무’)는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꼬마다. 2005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knamu.org)와 한겨레신문을 통해 성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올해 4월에 인천항을 통해 북쪽에 사과나무 2,200그루를 보냈다. 이 정도의 초라한 규모로는 대북교류사업을 한다고 어디에다 명함을 내밀기도 부끄럽다.

하지만 이미 모금운동에 참여한 2천여 명의 후원인들은 ‘북녘나무’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리고 올해 3월 24일에는 명동성당 포스트홀에서 기금 마련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가수 장사익·정태춘을 비롯해 시노래 모임 ‘나팔꽃’ 동인들이 기꺼이 출연료 전액을 기탁해 주었다. 이와 함께 판화가 남궁산 씨는 정성을 들인 목판화 10점을 선뜻 내놓았다.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함께 하겠다고 뜻을 피력한 기업과 단체, 개인 등은 우리의 밝은 미래요 큰 자산이다.

아이들 낳으면 아이를 위해 나무를 한 그루 심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큰 아이는 할머니 집에서 어린 동백나무를 가져다가 항아리 화분에 심었습



북녘나무 광고

니다. 벌써 꽤 많이 자라 이제 화분이 작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둘째는 그마저도 심어 주지 못했습니다. 내 땅 한 뼘 없는 이곳에서 쉬운 소망은 아닌 듯하군요. 북녘 땅에 이름표를 걸어 나무를 심어 주신다니 제 작은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과 우리 식구 이름표를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그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북녘 땅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월, 북으로 보낸 사과나무에 성금 기탁자들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모습

인터넷으로 모금에 참여한 한 어머니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북녘나무’는 이렇듯 나무를 통해 내일을 꿈꾸는 마음을 모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이런 발상과 상상이 통일을 밑바닥에서부터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 특히 나무는 북한의 경제를 밑바탕부터 바꾸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북녘의 산은 식량난과 연료난이 겹쳐 헐벗어 있고, 해마다 여름에 큰비가 쏟아지더라도 하면 큰 재앙이 되풀이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나무 한 그루를 북쪽에 보내는 일은 한반도 전체를 푸르게 만드는 꿈을 꾸는 일이다. 남쪽에서는 나무를 심을 ‘내 땅’이 없고, 북쪽에서는 땅은 있으나 나무가 없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내가 보낸 나무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보러 갈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어 보고 싶었다. 누구보다도, 통일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그 꿈을 꾸게 하려고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다.

‘북녘나무’.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이런 발상과 상상이 통일을 밑바닥에서부터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 특히 나무는 북한의 경제를 밑바탕부터 바꾸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헐벗은 산을 녹화하는 데 보탬이 되는 사업을 펼치는 게 ‘북녘나무’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데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한 후 방향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1차 사업으로는 사과산지로 유명한 황해북도 황주에 10ha규모의 ‘어린이 사과농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안에 의향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며, 내년 4월에는 사과나무 2만 그루가 북으로 가게 될 것이다. 3~4년 후 그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북쪽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북쪽 사람들의 정성으로 기른 사과를 남쪽의 어린이들에게도 맛보일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북녘나무’의 뜻을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줄도 안다. 운동본부 조직의 외연을 넓히는 일도 숙제 중의 하나다. 차근차근, 그러나 오래 우리는 북녘의 산하가 푸르러지는 그날까지 나무를 모으고 사람을 모을 것이다. 🌱



안도현 시인 ·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북을 여전히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동포애와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퍼줘야 합니다.”
북녘 나무’ 공동본부장인 그의 말이다

“흥겨운 통일문화로 남과 북을 잇고 싶어요”

가수 박진도의 통일사랑 이야기

‘북측 아궁이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북을 방문한 가수.
‘두 개의 금수강산 하나가 되어다오’라는 가사의 데뷔곡 ‘통일’에 이어
‘고향 가는 유람선’ ‘휴전선에 꽃피겠네’를 발표하더니 지금은 ‘금강산
처녀’를 취입중인 가수 박진도. 그의 27년 음악인생에서 묻어나오는
구수하면서도 감칠 맛 나는 그 만의 ‘흥겨운 통일’을 느껴보자



주위에서 본인을 ‘통일 전도사’라 부르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글쎄요.... 84년 일본 빅터 레코드사에서 ‘통일’
이라는 노래로 데뷔하면서 당시 가수 김연자씨
와 광복절 기념공연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장에 온 재일교포들로부터 느껴지던 ‘통일
열망’은 나로 하여금 민족분단의 아픔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내 데뷔
곡명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지향점이 되었다고 봅니
다. 그러다보니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수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
보다 앞장서서 하고 싶었고, 그런 저를 주위에
서 보고 붙여진 닉네임인 거 같아요.

일본에서 발표했다는 통일 앨범에 수록된 대표 곡명과
가사내용, 그리고 그 앨범을 출시하게 된 배경은?

대표곡명은 ‘통일’(도이즈)입니다. 84년 당시
88올림픽 유치기념으로 8·15광복절에 거류민
단 일본 전 지역 순회공연 때 불렀으며 가사내
용은 ‘나의 얼굴을 보세요. 마주보면 수줍어하
는 얼굴인데 고향생각 부모형제 항상 그리워
요...’ 등 남북분단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자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가수로서의 정식데뷔는 84년이군요. 그렇다면 가수를
지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네, 사실 저는 복싱 챔피언을 꿈꾸던 복서였습
니다. 홍수환 선배님이나 무하마드 알리, 레너
드처럼 세계적인 복싱 스타가 되는데 제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당시 체급은 주니어 라이트
급이었구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인발굴 노래자
랑이었던 1979년 KBS가요제에 참가하여 금상



을 수상하면서 가수의 길을 결심하게 되었
습니다.

음악과 결혼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주위사람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

네, 맞습니다. 가족관계는 5남 2녀 중 넷째입
니다.

‘통일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붙은 본인이 부른 통
일이나 남북관계 관련노래를 소개해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데뷔곡 ‘통일’에
이어 고 정주영 회장이 소 떼를 몰고 그것도
육로로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 벅찬 감동을 노래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당시 금강산 관광 길이 동해 유람
선으로 실현되자 그 시점에 맞춰 발표한 ‘고
향 가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이 곡은 ‘아빠
소 한 마리가 천 마리의 아들 소가 된다’는
가사에서도 느껴지지만 한반도 한 민족의
분단아픔은 조건 없이 남북이 교류할 때 해
소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저에게 심어준 곡
입니다. 그리고 ‘휴전선에 꽃피겠네’라는 곡
은 ‘녹슨 철길 위에 통일호가 달려가면 자나
깨나 그리웠던 부모형제 만나겠네’라는 구
절이 나오는데 이산가족들의 애환을 함께
느끼며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만든 곡
입니다. 이 밖에도 ‘살아생전 만나야지’가
있으며 지금은 ‘금강산 처녀’ 취입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지기도 본인이 현재 남북분단 소재의
‘금강산 처녀’ 음반취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데 취입 예정시기와 취입 동기는?

지난 3월 25일 사단법인 새천년생명운동본
부에서 추진하는 ‘금강산 연탄보일러공장
착공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때 북한 젊
은 여성들의 순수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새천년생명운동본부의 김홍중 이사
장님에게 비쳤고, 김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서 즉흥적인 감흥으로 읊어주신 시로 가사
를 만들게 되었죠. 내년 봄이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금강산 처녀’는 어떤 풍의 노래가 될까요?
북한 접대원 여성들을 조르고 졸라서 그네



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 5곡을 불러달라고
해서 들었는데 북한 주민들의 감성과 음악
적 정서까지 제 이 가슴으로 담아 왔습니다.
이 곡은 금강산을 찾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
신네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 예정
입니다. 가사도 이쁩니다. ‘검정 치마, 흰 저
고리 해맑은 눈동자, 아리따운 그대 이름 금
강산 처녀...’

본인은 ‘봉사하는 가수’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본인이 직접 만든 ‘우리사랑 나누리회’ 성격
과 그 활동은?

94년에 발족한 봉사공연팀입니다. 가요에서
민요, 클래식까지 다양한 멤버로 구성된 이
공연팀은 천주교 신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데 94년 이후 오늘날까지 지체장애
인 시설 나자루마을, 양로원 등 소외된 곳이
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공연을 펼친 것이 벌
써 150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들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본
인의 앞으로의 계획은?

지리적으로 우리보다 겨울이 더 길고 추운
북한 주민들에게 보일러를 지원하는 새천년
생명운동본부의 홍보대사 활동도 같은 맥락
입니다만, 우리 전통가요로 남북을 잇는 ‘통
일 전도사’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북한
을 조건 없이 돕고 싶다는 마음은 북한을 직
접 방문해 그들의 생활실상을 보면서 결심했
고, 그 가슴앓이로 결심한 제 노래로 푸는 흥
겨운 통일운동은 제 노래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겁니다.

끝으로 통일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이 기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민간교류가 활발해야 하며,
그 축으로 문화예술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허윤 통일교육소식지 편집위원 · (주)경향C&L 총괄팀장



가수 박진도는?
특유의 중저음과 우수에 찬 보이스 컬러
로 전통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가스펠·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내는 그는
지난 98년 ‘40대 부르스’, 2000년 ‘순매
보’에 이어 최근 7집에서는 신곡 ‘똑똑한
여자’ 외 ‘아간열차’ ‘유리벽 사랑’ ‘어머
니의 눈물’ ‘고향’ 등이 팬들로부터 사랑
을 받고 있는 듯까지 스타

“현실에 맞는 역량만이 함께 몰락하지 않는다”

동구 舊사회주의권 국가 연수를 마치고

지난 2월 15일에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에 입교한 이후 ‘통일정책·북한이해·국제관계·통일과정’ 과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 분단국 통일 및 체제전환 사례연구를 위해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독일을 방문하게 되었다.

9월 3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3시 반,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 반이었다. 지루한 여정이었으나 약간의 긴장감으로 인해 피로는 잠시 잊었다. 출국 수속을 마친 후 호텔에 투숙하면서 6개국(러시아·폴란드·헝가리 오스트리아·체코·독일)을 방문하는 14일 간 연수 일정의 첫 날이 지나갔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보니 도심을 흐르는 모스크바강 한 가운데에 피터대제의 동상이 13층 호텔 키만큼 높이 서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유난히도 맑은 공기는 답답한 공항 청사에 세 시간 동안 간혀 서서 출국수속을 받은 짜증을 다소 풀어주었다.

과거 사회주의 경제권을 형성하였던 동구의 가난한 국가들은 자원도 없고 축적된 경쟁력도 없어 힘겨운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다음 날 첫 공식일정으로 러시아 군사과학아카데미 산하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MEMO}를 방문하였다. 연구소의 조프린 부소장은 사전 준비된 자료를 발표한 후 교육생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었다. 구소련 붕괴 후 10년 간 침체되었던 경제가 최근 6%의 경제성장과 4%대의 실업률, 그리고 10%이하의 인플레이션 등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나친 석유·천연가스 자원에의 의존, 국내 생산경쟁력 저하,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그로부터 자신감에서 배어나오는 희망과 함께 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의 자존심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구소련의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을 대부분 승계한 러시아의



최대 전략연구소인 IMEMO의 경제분야 현안은 러시아 경제일 뿐, 과거 무력으로 건설하고 유지하였던 동구 위성국가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데올로기가 소리 없이 사라지면서 과거 사회주의 경제권을 형성하였던 동구의 가난한 국가들은 자원도 없고 축적된 경쟁력도 없어 힘겨운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도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북한의 경제개혁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전날 있었던 세계청소년여자축구대회에서 북한이 우승하였다며 축하한다고 인사를 한 것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의 전부였다.

공식일정 이후 모스크바 시내를 둘러보았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유명 관광지는 이색적이면서도 낯익은 곳이 많았다. 다음 날 저녁까지 지내면서 나름대로 모스크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유료 화장실은 현지 화폐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영어가 한 마디도 통하지 않았으며 식품점에서는 높은 물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고급 승용차가 수 없이 다니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지만, 경찰 순찰차는 도색이 벗겨져 녹이

슬었고, 묵었던 국영호텔 진입로는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패여 있었다. 체제전환이 이루어진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수십 년 만에 배인 타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듯 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폴란드 항공편으로 바르샤바에 도착, 짐을 푼 곳은 시내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여 늘 피지배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했던 폴란드는 많은 유적이 파괴되고 유물은 손상되어 있었다. 공원·쇼핑 생가·퀴리부인 박물관 등이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이었고, 보드카의 원조 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유럽의 중심지이며 동구 국가들 중 가장 큰 나라이지만 40여 년간 공산당의 오류가 남긴 것은 경제실패와 동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부채이다. 다음 날 오전에 방문한 폴란드 국립중앙은행의 대외협력 국장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개혁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악성부채 해결, 해외자본 유치 등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면서 은행을 나섰다.

폴란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헝가리에 도착한 다음 날 헝가리 민영화청을 방문하였다. 민영화청 업무현황 발표를 마친 부청장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자본이 빈약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지 못한 헝가리이지만 사회주의체제하에서도 사유재산제도가 있었으므로 민영화 성공사례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통제력을 잃은 국가의 사유화과정에서 극심한 빈부격차를 초래하였고, 40여 년간의 경제오류로 인한 국가채무와 악화된 국가경쟁력은 체제전환 이후에도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체코는 전쟁의 포화를 피하여 많은 문화유산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은 거리들과 각종 양식의 건축물들에 의해 외관상 다른 동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느껴졌으며, 공식방문으로 체코 투자청에서 주관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체코인들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해외부채가 없으며 숙련된 노동력과 공업전통을 기반으로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40여 년의 사회주의 경험이 건전한 시장경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구 공산국가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는데 성공하였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프라하에서 기차 편으로 국경을 넘어 베를린으로 향했다. 여권검사는 없었으며 작은 역에서 10여 분 정차하면서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출발했다.

장벽의 흔적이 시내 중심가 도로 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나서 장벽의 현장을 찾았다. 생각보다 높고 견고한 벽이었다. 심리적·물리적 영향은 휴전선의 철책 못지않을 것 같았다. 철조망이 아니라

벽을 쌓은 것은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장벽이 붕괴된 지 11개월 만에 통일을 이룩하고 다시 16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일행 이외에 현장을 찾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베를린 경제연구소였다. 10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이었으며 통일 이후의 경제지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통일 이후 서독주민은 혜택이 줄고 부담금이 증가하였으며, 동독주민은 3/4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며 1/4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통일 후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통일을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치르고 있을 비용과 통일을 이루어야 할 과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행의 마지막 국가인 독일에서의 짧은 일정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서울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남북관계는 동서독 관계와 다르다고 북한은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남북관계는 동서독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서독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함께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반도 현실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통제력을 잃은 국가의 사유화과정에서 극심한 빈부격차를 초래하였고, 40여 년간의 경제오류로 인한 국가채무와 악화된 국가경쟁력은 체제전환 이후에도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장기화될수록 시장경제체제에의 적응능력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남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관계에서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강이식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소련에서 시작되어 동구권을 변화시킨 개혁열풍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북녘 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북한을 축으로 한반도 주변에 형성되어 가는 신 냉전구도를 완화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제2회 통일문화 페스티벌 결산

하나된 ‘통일축제’ 3일장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은 ‘하나되어 함께하는 통일세상! 주제 하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화체험으로 남과 북이 하나되는 길을 찾는 통일문화의 장이었다. 본 행사는 크게 교육프로그램 ‘한마음학교’와 체험프로그램인 ‘한마음체험마당’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한마음학교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과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1교시 ‘통일미래는 우리의 것’ 시간에는 북한의 변화상황과 통일의 필요성·미래상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를 있었고, 2교시 ‘남북청소년대화’ 시간에는 새터민 청소년과의 대화시간을 마련, 문화적 성장배경이 다른 청소년간의 소통과 이해를 모색하였다.

한마음 체험마당은 통일교육원 원내를 구역별로 ‘통일체험관’ ‘북한영화전’ ‘남북교류장터’ ‘통일갤러리’ ‘북한음식마당’ ‘통일놀이마당’, ‘공연마당’의 7개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교육관에서는 ‘한눈에 보는 북한, 손에 잡히는 통일’이란 주제로 통일체험관을 열어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담은 패널 및 북한물품을 전시하는 ‘북한체험실’과 북한 친구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전시하는 ‘북한교과서전’,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테트리스와 탁구게임을 해 볼 수 있는 ‘통일게임을’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북한영화전’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북한영화를 보는 ‘테마관’, 그리고 행사기간 내 한 시간 단위(아침10시~저녁 7시)로 상시 북한 만화영화를 상영한 ‘애니관’의 경우 소풍을 겸해 통일문화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유난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통일교육원 잔디마당에서는 ‘공연마당’과 ‘통일놀이마당’이 펼쳐졌다. 개막 첫날에는 특별공연으로 ‘평양민족예술단’이 인기가

요·민요·전통무용 등 흥겨운 북한식 공연을 펼쳐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 밖에 페스티벌 기간 동안 퓨전 재즈 밴드인 더캣하우스THE CAT HOUSE의 공연이 있었고, 서울을생활과학고등학교의 밴드·댄스팀 ‘청소년 어울지기’는 청소년 특유의 박력 넘치는 공연으로 또래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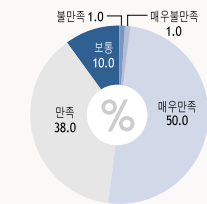
잔디마당 한 켠에서는 ‘북한음식마당’과 통일패스워드·통일웃놀이·통일퍼즐맞추기·한마음 줄넘기·휴전선에 평화를 심자·희망의 비행기를 날려라 등으로 구성된 ‘통일놀이마당’이 진행되었다. 통일교육원을 들어오는 입구에는 제1회 전국평화통일만화전 수상작품을 전시한 ‘평화통일만화전시회’와 금강산·백두산의 절경을 한 눈에 담은 ‘금강·백두 이정수작가 사진초대전’이 있었다. 통일교육원 본관 앞마당에서는 ‘21세기 新개성상인시대’를 여는 남북 교류장터가 꾸려져 개성공단 생산의류와 평양통배추김치, 금강산생수를 판매하였다.

통일교육원은 이번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 행사 커버스토리 6P 참조) 편집부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 설문구성 및 결과
(행사 참가자 중 804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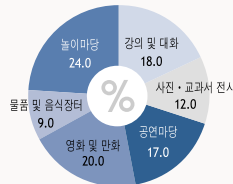
1. 이번 통일문화 페스티벌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응답자 중 88%가 행사전반에 대해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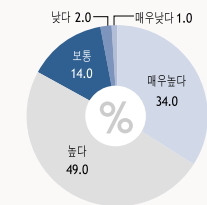
2.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흥미있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둘 다 호응도가 높아 양자의 병행이 효과적이었음



3. 이번 통일문화 페스티벌을 통해 북한 및 통일문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응답자 중 83%가 행사참여 후 북한 및 통일문제 이해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제25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수상자 발표

통일교육원의 제25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4개 대학원에서 7편, 30개 대학에서 38편의 논문이 응모되었으며 이 중 8편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구분	수상자	주제	비고
우수상	정민수	남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원생
	이지현	한반도 통일 외교를 위한 정책적 권고 -한미동맹 위기 원인 분석과 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정치경제학적 분석	
	김영우	TKR 연결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 EU의 공적개발원조(ODA) 활용가능성의 모색	대학생
장려상	박소영	새터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결을 위한 치료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적용	
	길세철	새터민의 인권 개선 및 정착 촉진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지원에 관한 연구	
	신채희·이지환	통일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 Solow 모형과 Dynamic Competitive Equilibrium 모형을 통한 경제성장의 초기조건 및 요인분석	
	박종근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축산 협력사업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제작진모임 2006년도 워크숍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통일교육과 방송의 역할’이란 주제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설악에서 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2006년도 방송제작진모임 제1차 워크숍이 있었다. 방송제작진모임은 통일·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활동하는 PD·방송작가 및 통일교육 전문가들 간에 정보공유를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이번 1차 워크숍에서는 ‘교육방송의 남북 방송교류 현황’, ‘통일교육의 새 방향과 언론의 역할탐색’ 등이 발표되었다.

1일 통일교사 활동 확대실시

통일부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모교와 자녀학교 등을 방문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현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는 ‘1일 통일교사’ 활동을 2004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일선학교에서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기관을 초·중·고교 외에 대학

이나 군부대, 민간단체 등을 포함시켜 11월 말 현재 142개 기관 31,225명(초·중·고 106개교)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교육청 공동주관 4~6차 워크숍

통일교육원은 지난 8월에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제4, 5, 6차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4차 워크숍에는 중학교와 특수학교 교원 280여 명이, 제5차 워크숍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원 370여 명이, 제6차 워크숍은 고등학교 및 교육전문직 공무원 2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7차 워크숍은 12월 8일 경북 교육청과 함께 구미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베트남 통일교육 워크숍

과거 분단국인 베트남의 통일전후 사회통합교육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통일교육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베트남 통일교육 워크숍’이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통일교육원 강석승 연구개발팀장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행사로 호치민대학 및 베트남사회과학원과 각 한 차례의 워크숍을 가졌다. 특히 베트남사회과학원은 향후 자료교환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통일교육교재 인터넷 공모 결과 5편 선정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현장감 있는 ‘교재개발’과 참신한 ‘기획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난5월 한 달여간(4일~31일) 인터넷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6편이 응모하였으며 이중 5편을 선정, 용역계약을 의뢰하였다. 이 5편은 2006년 4/4분기 및 2007년 상반기에 통일교육의 참고 교재로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

인터넷 공모과제	주 대상
북·중 국경무역과 북한시장의 도입 실상	일반인
의료수준을 통해 본 북한의 실상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북한의 환경문제	어린이 및 청소년
엄마·아빠와 함께 읽는 통일이야기	

‘교류협력자’ 용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북한방문 길라잡이’ 개정판



북한을 처음 방문하는 방북자들을 위한 안내서로 2000년 첫 발간이후 매년 수정판을 내오던 ‘북한방문 길라잡이’가 전면 개정되었다. 2005년에 50쪽 내외의 수첩사이즈의 ‘북한 관광 길라잡이’를 발간한 데 이어 금년에는 남북간 교류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북한방문 길라잡이’ 전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된 것. 금년에 발간된 ‘북한방문 길라잡이’는 150면 내외의 전면 컬러 인쇄본으로 방북절차 및 방북경로 등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북한방문 안내교육생’들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다.

통일교육원, 150페이지, 비매품

일상생활의 모습 중심으로 구성

사진으로 본 북한주민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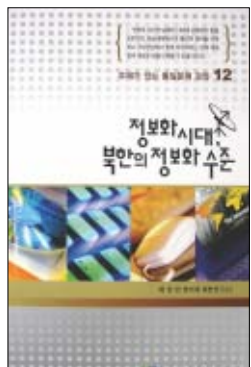
기존의 추상적이고 계량적인 통일교육자료와는 달리 북한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사진으로 본 북한주민의 생활’이 화보 성격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우측사진은 가표지) 북한주민의 일상 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기획된 이 자료집은 도시 · 농촌 · 경제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명절나기와 일반 생활이라는 큰 카테고리 아래, 테마별 간략한 자료 설명과 각 부제별 이해를 돕는 사진설명 형태의 도움말(각각의 해당사진과 사진 설명 별도)을 곁들이고 있다.



통일교육원, 96페이지, 비매품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시리즈 12번째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북한의 통신인프라 현황 및 인터넷 수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책이 나왔다. 통일교육원은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시리즈의 12번째 권으로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수준’을 지난 9월 발간하였다. 이 책은 북한이 IT산업 발전전략을 채택한 배경, 남북한 정보화수준 격차 및 정보화 교류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원, 79페이지, 비매품

교육생들의 참여도 높이는 방법론 소개

의사소통적 통일교육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고민이 되는 것은 교육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통일교육원이 10월에 발간한 ‘의사소통적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시 교육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한 책이다. 좌석배치와 조편성의 구체적인 방법, 주제에 대해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촉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통일교육원, 148페이지, 비매품

통일교육소식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4 2006. **12**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통일교육소식’ 담당자(앞)

 -


본 통일교육소식UEM은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네 맘과 정성을 담은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질타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열매를 맺기 위한 빛과 거름이 되겠습니다

대륙철도의 꿈 / 장재홍 외 4인

한국교통연구원 강재홍 원장 등 5명의 철도전문가가 21세기 새로운 실�크로드

한국교통연구원, 2006년 7월 13일, 10,000원

VOL. 4 2006. **12**

67



‘통일열망’의 작은 불씨를 보듬어
한반도 전역이 웃음으로 가득한 그 날까지
통일교육원은 ‘통일등불’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